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지원 사례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박 영 신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지원 사례연구

권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박 영 신

인 준 서

박영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양육지원을 계획하고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유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유아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양육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유아의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자는 S구 드림스타트사업의 일환인 저소득,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몽고출신)와 만 5세의 유아를 만났다. 한부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어려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2013년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 1회, 1회 1시간-1시간 30분 동안의 심층면담과 8회의 참여관찰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그를 토대로 자녀양육 지원을 계획하였다. 자녀양육지원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총 24회기, 1회당 1시간~1시간30분씩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유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나타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 어머니의 어려움은 크게 남편의 부재로 인한 한국사회의 이해 부족, 모국어 사용의 배제로 인해 자녀와의 언어적, 정서적 소통의 어려움과 가족 해체로 인한 한국사회와의 단절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 결혼이주 여성 가정 유아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감, 또래보다 부족한 기초 학습으로 인한 자신감 저하로 나타났다.

둘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양육지원 초기에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던 어머니는 양육지원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자존감을 회복하여 스스로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 자신의 모국문화 배제로 인해 자녀와 언어적, 정서적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육지원을 통해 정서적 위안과 심리적 안정을 받은 어머니는 모국문화를 수용하게 되고 자녀와 정서적 소통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이혼은 배우자를 비롯한 한국인과의 단절을 가져와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양육지원을 통해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였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녀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아는 한국인인 아버지는 부재하지만 어머니로부터 한국인임을 인정받고,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 갔으며 어머니의 적극적인 자녀교육 참여로 인지적인 부분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7
3. 연구자	7
II. 이론적 배경	9
1.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	9
1)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개념	9
2)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현황	11
2.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려움	16
3.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대상 양육지원	19
1)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대상 양육지원 필요성	19
2)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대상 양육지원 관련연구	19
III. 연구방법	25
1. 연구 참여자	25
2. 연구 절차	29
3. 자료 수집	35
4. 자료의 분석	37
IV. 결과 및 해석	39

1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유아의 어려움	39
1)	어머니가 경험하는 어려움	40
	(1) 혼로 한국인처럼 살아내기	40
	(2) 모국어 사용 배제로 인한 자녀와의 소통 어려움	42
	(3) 남편 부제로 인한 한국사회와의 단절	45
2)	유아가 경험하는 어려움	48
	(1) 아버지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	48
	(2)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51
	(3) 자신감 저하	54
2.	양육지원을 통해 나타난 어머니와 유아의 변화	57
1)	어머니의 변화	57
	(1)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갖기	57
	(2) 모국 문화와 모국어에 자긍심 갖기	62
	(3) 자녀의 발달과정 이해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65
2)	유아의 변화	68
	(1) 정체성 갖기	68
	(2) 남자 아이는 자라서 어른 남자가 되요	71
	(3) 난 할 수 있어요.	74
V.	결론 및 논의	79
1.	요약 및 논의	79
2.	결론 및 제언	85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외국인과의 이혼	13
<표 2> 한국인 및 외국인과의 이혼비교	14
<표 3> 전국 한부모 가구 현황	15
<표 4> 한부모가족 형성요인별 현황	15
<표 5> 어머니와 유아의 어려움에 대한 양육지원의 방향	31
<표 6> 어머니를 위한 양육지원 내용 및 구성	33
<표 7> 유아를 위한 교육지원 내용 및 구성	3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여성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의 증가로 다민족(multi-ethnic), 다인종(multi-racial), 다문화(multi-cultural) 사회를 맞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는 이미 새삼스럽지 않은 주제이며 정부의 지원정책, 기업과 언론매체의 캠페인 등으로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다. 2000년대 들어 급증한 결혼으로 인한 이주패턴은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다문화적 현실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이주여성들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응, 그리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 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13년 국제결혼은 총 혼인건수의 8.0%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통계청, 2014), 여전히 10명 중에서 1명의 비율로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규모는 2012년 268천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 향후 8년간 3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 2012).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은 남편이 한국인이고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70.5%이며, 남편이 외국인이고 아내가 한국인인 경우는 29.5%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4). 따라서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들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육지원'이지만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교육과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최근에 와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대상 문화 이해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특강 등과 같은 일회성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들은 입국 초기 단계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들이 학부모로서 자녀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 그리고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활동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2).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각종 외국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다문화, 사회통합 등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내외국인 간, 인종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의 양적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혼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이혼은 2003년 국내 이혼의 2,0%를 차지하였지만, 2013년 10.5%까지 증가하였다(통계청, 2014). 가족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중요한 이유는 가족이 사회구성의 핵심단위로서 가족해체가 곧 사회해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불행이 국가 - 사회의 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해체는 당사자를 비롯하여 가족구성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아내의 이혼도 2003년 547건에서 2013년 7,588건으로 크게 증가하여(통계청, 2014)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어진다.

최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11)의 상담 자료를 보면, 상담유형에 이혼문제와 체류문제 그리고 가정폭력, 부부갈등에 대한 상담유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결혼을 목적으로 하여 맺은 국제결혼가족은 부부간 문화의 이해가 없고 언어적 장벽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사회가 자녀들의 양육에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보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까지 더해져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해체 후 상실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생활양식의 획득이라는 이중적 과제와 더불어, 남편과의 관계가 단절된 한국사회에서 고립, 격리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녀와 엄마 사이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정서적 교류와 언어적 소통에 생긴 장애는 아이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는 미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자녀의 숙제 점검이나 학습지도를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 모임 등 학교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 조영달, 2006)을 볼 때, 자녀교육의 문제는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생활 중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일 것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송미경, 이은경, 신호정, 2009)에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일반적으로 여성 한부모가정은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며, 경제적인 문제는 다시 자녀양육의 문제와 연결되어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한다는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자녀를 감정적으로 양육하며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며(김은하, 2008)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 빈곤의 문제와 심리 사회적 문제 등의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가진다(김갑성, 2006)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부모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역할과 자녀양육의 이중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결혼이민에서 이혼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은 일차적으로 생계의 문제에 봉착하고, 취업을 하게 되어도 불안정한 일 자리에 고용될 확률이 높아 빈곤의 위협에 노출되고, 또한 자녀양육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과 직장생활 제한이라는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이현송, 2008). 따라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개별 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신체적 차이, 언어적 환경 차이,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정체성 혼란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생부터 외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성장하면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이 있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2005)에 의하면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이 17.6%이었으며, 이는 외모로부터 오는 차이로 인한 차별을 의미한다. 특히 어머니가 태국, 필리핀, 등의 외국인일 경우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해체 이주여성 가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또래들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집단 따돌림을 받으며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정체감 형성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언어적 환경에 따른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데 가정환경은 언어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어머니와의 언어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정의 충분한 모국어 습득 환경과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의 사용언어 및 의사소통 유형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은희, 2004). 한국어가 서투른 어머니로 인해 자녀들은 유아기 때부터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학습능력과 이해력이 크게 떨어지고, 보통 일반가정에서 부모들의 도움으로 익히는 한글쓰기와 읽기, 수학 등의 기초학력을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양재찬, 2006). 이렇듯 기초학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아동들은 한국어 의사소통,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아동이 어머니를 통해 우리말 배우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오성배

(2005)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언어학습과 정체성의 형성, 대인관계의 형성과정이 다른 아동들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와 학교의 준비 부족과 더불어 언어·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건강한 다문화가정의 형성과 자녀 양육을 위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교육지원 사업을 2009년부터 전개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매우 작고 지역별 특성 및 개별가정의 당면 문제 등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컨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교사와의 정보교류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점,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절반정도가 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이재분, 2008)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일반 학부모 간의 교류를 학부모교육 내에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한국사회에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부모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중 20%에 불과하다(이재분, 2008). 더욱이 사회적 지지 중 교사의 지지가 이주 여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박민서, 2007; 박계란, 이지민 2010) 다문화가정의 유아에게는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학위논문들을 살펴보면, 부부갈등(손은록, 2005; 신경희, 2005; 이규삼, 2000), 가정폭력(안현주, 2006; 양정화, 2005), 결혼만족도(안현정, 2003; 손진분, 2008; 최지명, 2007 등 다수), 생활만족도(김나영, 2007), 사회적 지지망(이태욱, 2006; 추현화, 2007), 인권침해(김선아, 2007)등의 주제가 두드러진다. 또한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 과제(설동훈, 윤홍식, 2008),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인권과 복지(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2003) 부부갈등과 학대(김오남, 2006), 인구학적 특성(이혜영, 2005)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관심사는 결혼 이민자들과 배우자 및 국내 가족, 지역사회 사이의 상호 적응 문제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즉, 문화적 차이와 그에 대한 이해부족,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귀화 전 이주여성의 불리한 신분 및 비정상적인 결혼과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적응과 현황, 더 나아가 가정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 등이 연구와 정책적 고려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 후 삶의 과정을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을 겪으며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는 한국에서 홀로 자녀와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투와 시련의 과정일 것이나,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알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유아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에 적합한 양육지원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유아의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 지원을 위해 유용한 실천적 지식을 산출하고,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실무자가 각 가정의 사례에 적절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유아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양육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유아의 변화는 어떠한가?

3. 연구자

연구자는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 4, 5세반 담임을 맡아 각각 4년과 6년의 근무 경력이 있으며 현재 S구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강사를 맡고 있다.

연구자가 속한 드림스타트(Dream Start)의 사업은 빈곤한 가정의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 보건 기타 문제들에 대해 개입하기 위한 모형으로 개발되었고,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0~12세 아동,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보건복지부, 2013). 연구자는 영·유아 부모지원 사업의 강사로 2013년 4월 연구자가 교육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만 3세 아동부터 초등 6학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행복한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연구 참여자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몽골인)과 그녀의 자녀(만 5세, 남아)를 만나게 되었다.

연구자는 객관성을 가지고 연구 참여자의 어려움에 대해 분석하고 교육적 지원을 설계해야 하지만, 연구 참여자인 유아 또래의 자녀가 있는 연구자에게는 참여자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즉, 외국인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 감정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 연구자의 개인적 감정이 더하여져 안타깝게 느껴졌다. 몽골인 어머니는 주변에 한국인 지인도 없으며, 다문화 관련 커뮤니티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이혼으로 한국인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과연 올바르게 한국어로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을지, 또한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한국어 교육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한 가족 구성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어 사용이 개선 될 수 있을지, 연구 참여 유아는 일상의 경험을 어머니의 설명 없이 본인의 짐작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를 진학하면 학교생활이 원활할 수 있을지 등등의 걱정과, 몽골인 어머니가 좀 더 일찍 자녀가 영아기 일 때 엄마의 모국어와 모국 문화로써 양육 했다면 유아는 어머니와 지금보다 안정된 정서의 교감을 나누고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범주에는 너무나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기에 각각의 가정에 알맞은 교육적 지원을 모색하고,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적용하여 그 지원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

1)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개념

최근 사회가 다양화, 다변화,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출현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란 이혼가정, 사별가정, 미혼모·부가정, 재혼가정, 독신가정, 노인가정, 무자녀가정, 장애인가정, 입양가정, 다문화가정, 비혈연가정, 동성애가정 등을 말한다. 또한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참여 등에 관한 활동공간의 지리적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 국가와 인종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적 특징을 가진 두 개인이 결합되는 초국가적(transnational)성격의 결혼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김이선, 2007).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언어와 일상생활은 물론 가족관계를 변화시킨다.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출생에 의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국제결혼가족만을 의미하며, 이는 최소한 한 사람의 가족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되었다. 2011년에 개정된 동법에 근거하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출생·인지·귀화에 의한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다문화가족 범위가 확대되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 실제 학교 현장과는

대응되지 않아 광의의 개념의 다문화가정의 개념이 요구되어 국제결혼 가정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가족구성원까지 포함된 의미로 여기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외국인 만으로 구성),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화교, 새터민 가족 등이 포함된다.

모자복지법상에 규정된 ‘한부모가정’의 정의는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가족구조적인 결손 뿐 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가족 기능적 결손까지를 포함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소희 외, 2003). 그러나 현 가족복지 내에서는 “부모 중 한 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부자 혹은 모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한국여성개발원, 2001; 강기정 외, 2002) 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한부모가정은 그동안 편부, 편모가정으로 불리었으나 편부모가정의 편이 반쪽, 한 쪽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 부족하고 쪼개어진 느낌을 주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고 하여 1998년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부르게 되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 한부모가정사랑회와 같은 한부모가정 단체들이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 용어를 일반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용어정의를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을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한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학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외에 ‘여성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 연구자에 따라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법률상의 정의에 기초하여, 한국 남성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여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한국 이혼 가정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서울신문,2012.11.24). 따라서 한국 사회 내에서 다문화 가정이면서 한부모가정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은 배우자가 없이 홀로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외국으로 부터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여성의 ‘이주여성’이란 용어를 합성한 의미로 그 개념들을 통합하여 정리해 볼 때 ‘한부모 결혼이주여성가정’은 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해옴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구성했던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별거, 사별로 인해 기존의 구성가족이 해체되어 자녀와 함께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라 하겠다.

2)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현황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증가 못지않게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한 국제결혼가정의 해체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이혼이 증가한 것은 국제결혼의 양적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재규, 2009). 국제결혼 여성은 한국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한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결혼하고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즉 한국어 이해가 부족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들은 남편과 그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의 가부장제적 성문화 및 가족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를 기피함으로써 스스로를 고립시켜 부부 및 가족갈등을 겪으며, 여기에 남편의 대화기술 부족은 국내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박재규·이윤애, 2005; 박재규, 2007; 양선화, 2004). 더욱이 국제결혼은 매우 단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비한 실정

인데, 한국 남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매대혼 성격을 띠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김상임, 2004; 박재규, 2005; 박현정, 2004; 설동훈, 2005; 안현정, 2003; 이해경, 2005; 최진영, 2004).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혼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전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1,498건으로 전체 이혼의 1.3%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10,500건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72.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4).

가족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중요한 이유는 가족이 사회구성의 핵심단위로서 가족해체가 곧 사회해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불행이 국가·사회의 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해체는 당사자를 비롯하여 가족구성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가족해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나 가족해체에 의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가족해체의 전형적 유형인 배우자 관계의 단절은 배우자의 사별, 이혼, 별거, 유기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해체 이후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혹은 일부는 불법체류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등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연구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박재규, 2007). 따라서 그 동안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이명신(2006)은, 이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녀 동거, 시부모와의 관계 등을 지적하고 있다. 김두섭, 이명진(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에 있어서 부부간 연령과 교육수준의 상이성이 결혼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연령 격차는 혼인 지속 기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 실태의 제한된 사례를 가지고 한 연구 결과(설동훈, 2005)에서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사유를 가정폭력,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성격 차이 등으로 들고 있다. 한편 박재규(2009)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이 출발부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에 이것이 이혼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질적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과정에 대한 배우자의 폭력이나 음주에 대한 내부자적 관점을 통해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박미정, 2011).

선행연구로 볼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된 연구는 미비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외국인과의 이혼

	(단위 : 천 건, %)											전년대비 증감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구성비
총 이혼 건수	166.6	138.9	128.0	124.5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00.0	0.9
외국인과의 이혼	2.0	3.3	4.2	6.1	8.3	11.0	11.5	11.1	11.5	10.9	10.5	9.1	-3.7
한국남자+외국여자	0.5	1.6	2.4	3.9	5.6	7.9	8.2	7.9	8.3	7.9	7.6	6.6	-3.7
한국여자+외국남자	1.5	1.7	1.8	2.2	2.7	3.1	3.2	3.2	3.1	3.0	2.9	2.5	-3.9

<출처: 통계청, 2014. 혼인·이혼 통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이혼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의 이혼은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과의 이혼 중 한국 남자·외국 여자와의 이혼은 72.4%, 한국 여자·외국 남자와의 이혼은 27.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의 한국인 및 외국인과의 이혼 비교에서 살펴보면, 다문화부부의 이혼건수는 2000년 1,498건에서 2013년 10,480건으로 동 기간 한국인의 이혼추이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한국인 및 외국인과의 이혼비교

(단위 : 건)

연 도	총계	한국인 가정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		
			계	한국(남)+외국(여)	한국(여)+외국(남)
2000	119,455	117,957	1,498	247	1,251
2001	134,608	132,914	1,694	387	1,307
2002	144,910	143,166	1,744	380	1,364
2003	166,617	164,605	2,012	547	1,465
2004	138,932	135,632	3,300	1,567	1,733
2005	128,035	123,864	4,171	2,382	1,789
2006	124,524	118,388	6,136	3,933	2,203
2007	124,072	115,778	8,294	5,609	2,685
2008	116,535	105,555	10,980	7,901	3,079
2009	123,999	112,526	11,473	8,246	3,227
2010	116,858	105,770	11,088	7,852	3,236
2011	114,284	102,789	11,495	8,349	3,146
2012	114,316	103,429	10,887	7,878	3,009
2013	115,292	104,812	10,480	7,588	2,892

<출처: 통계청, 2014.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및 인구동향조사 재구성>

또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현황은 표 3의 전국 한부모가구 현황과 표 4의 한부모가족 형성 요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2013년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면 한부모 가정의 가구 수는 2005년에는 1,370천 가구이었으나 2010년에는 1,594천 가구로 증가하였다. 이 중 모자가정은 1,247천 가구로 약 78%를 차지하며, 부자가정이 347천가구로 약 2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 전국 한부모 가구 현황

(단위 : 1,000가구, %)

연 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계	모자가구	부자가구
1990	11,355	889 (7.8)	-	-
1995	12,958	960 (7.4)	788 (82)	172 (18)
2000	14,312	1,124 (7.9)	904 (80)	220 (20)
2005	15,887	1,370 (8.6)	1,083 (79)	287 (21)
2010	17,339	1,594 (9.2)	1,247 (78)	347 (22)

※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 가구 비율임

한부모 가정의 현황을 혼인 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2010년 이혼가정이 523천 가구(32.8%)로 가장 많고, 이어 사별가정이 474천가구(29.76%), 유배우 가정 413천가구(25.9%), 미혼모·부 가정 185천가구(1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를 보면 한부모 가정의 비율 중 이혼가정과 사별가정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혼가정과 사별가정에는 다문화가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표 4> 한부모가족 형성요인별 현황

(단위 : 1,000가구, %)

연 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계	한부모가구 비율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1990	11,355	498(56.0)	79((8.9)	85(9.6)	227(25.5)	889(100)	7.8
1995	12,958	526(54.8)	124(12.9)	94(9.8)	216(22.5)	960(100)	7.4
2000	14,312	502(44.7)	245(21.9)	122(10.9)	252(22.5)	1,124(100)	7.9
2005	15,887	501(36.6)	399(29.1)	142(10.4)	328(23.9)	1,370(100)	8.6
2010	17,339	474(29.7)	523(32.8)	185(11.6)	413(25.9)	1,594(100)	9.2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2는 보호대상자의 특례 범위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주자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다.

2.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려움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은 우리나라에 시집음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구성했던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별거, 사별로 인해 기존의 구성가족을 깨고 자녀와 함께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다. 현재, 한부모 결혼이주여성가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된 연구는 있으나, 이는 이혼과정에만 치우쳐 있고 별거 이후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자녀와 살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문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전 결혼 중개업체의 부정적인 형태로 정상적인 출발을 하지 못하며, 결혼생활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비하의식과 사회적 시선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 곤란,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에 갈등이 생겨나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오경석·김희선, 2007). 국제결혼의 이혼율을 살펴보면, 2000년 1,498건에서 2013년 10,490건으로 증가 되었다(통계청, 2014).

201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외국인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472건 중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경제 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성격차이, 불성실한 생활,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거짓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자녀학대, 전혼 자녀와의 갈등, 도박, 시가와의 갈등 순이다. 특히 이들은 책임 없이 중개에 임하는 결혼소개업체의 허위, 과장된 정보로 인해 외국 여성들은 한국에 입국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한국 남성 역시 외국인 아내의 잠적 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다문화신문, 2011. 6. 27). 한 가정의 이혼은 배우자 상호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혼이민에서 이혼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1만 명인 시대에서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은 일차적으로 생계의 문제에 봉착하고, 취업을 하게 되어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고용될 확률이 높아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고, 또한 자녀양육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과 직장생활 제한이라는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이현송, 2008).

마찬가지로 많은 실태조사에서 국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과 애로를 토로하고 있으며(설동훈 외, 2005; 조영달, 2006), 양육스트레스는 일반가정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학령전기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는 높고 양육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외, 2012).

한국사회에서 양육은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언어와 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일반가정에 비해 어려움이 더 많으며(서현, 이승은, 2007), 무엇보다 자녀양육에 관한 충분한 준비와 지식 없이 부모기를 맞아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유은광 외, 2012). 또한 다문화 가정의 가족해체는 다문화 자녀들을 어머니의 본국으로 보내지거나 보육원에 맡겨지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한국이주여성인권 센터, 2012).

2010년 다문화 이혼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15.9%로 2008년보다 4.3%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의 증가는 자녀들의 위기가 증가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결혼이민자의 가정 52.6%가 최저 빈곤층에 해당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05), 이혼가정 자녀의 경우 매우 취약한 상황에 몰리게 된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 다른 외모, 문화, 말씨로 인한 소외감, 집단 따돌림 등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한국염, 2011), 다문화 자녀들은 엄마의 언어능력 부족, 부모의 높은 이혼율, 경제적 어려움 등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이진아, 2009). 또한 언어습득 지연과 이해력 미숙, 학습부진, 사회성 및 성격발달의 문제, 정체성 혼란 등으로 다양한 인지적, 발달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정명희, 2011).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은 2020년경에는 국민결혼 5쌍 중의 한 쌍이 국제결혼이고 이어 태어나는 자녀들도 추산하면 1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2020년에는 20세 이하의 인구 5명 중 1명, 신생아 3명 중 1명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될 전망이다(프레스이안, 2009. 9. 8).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혼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또한 한국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원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대상 양육지원

1) 한부모 이주여성 대상 양육지원의 필요성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모두 양육 상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이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역할 비중이 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한국 부모들에 비해 부모 자신의 적응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여러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강기정(2009)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양육자·훈육자·보호자·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한 부모역할 수행에 관련한 부모의 부모 정체성 및 부모 역량 강화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노미향(2009)은 결혼이민자 가정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시기별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자녀의 병원 진료, 예방접종, 장난감의 용도, 기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수임을 강조하였다.

고은미(2008)는 전북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상설화된 프로그램(찾아가는 양육서비스)과 단기 프로그램(자녀방문학습지 지원사업, 문화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으므로 자녀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추어 연령별 자녀양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

에 대한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과거에 비해 많아지긴 했으나 아직 까지도 매우 적은 실정이며 그 중 의 대부분은 자녀의 학업 수행을 위한 지원 혹은 상담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송미경, 이은경, 신호정, 2008).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김연수(2008)와 김은경(2010)의 연구가 있으며, 이 두 연구 모두 심리적 측면으로 접근하였고, 부모와 자녀 관계의 증진과 양육 효능감 향상 등을 위한 도구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유아기 자녀에게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갖는 경우가 드문데,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 단계이며, 따라서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라는 장벽에 부딪혀 효과적으로 내용이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적은 실정이며, 그 중의 대부분은 자녀의 학업 수행을 위한 지원 혹은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대상을 좁혀 그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 내용이 조직될 필요가 있고, 특히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적합한 양육지원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2)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대상 양육지원 관련 선행연구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은 가족해체를 경험하면서 일차적으로 생계의 문제에 봉착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언어와 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일

반가정에 비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장벽은 자녀의 양육에 또 하나의 현실적 문제로 자리하면서 자녀의 언어습득 지연과 이해력 미숙, 학습부진, 사회성 및 성격발달의 문제, 정체성 혼란 등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대상 양육지원의 실태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모교육을 위한 연구들(김은경, 2010; 송미경 외, 2008; 최인숙, 2008)에서는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 일상의 대화에 어려움이 없는 어머니들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내용을 읽고,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따라서 송미경(2008)은 슬라이드 자료를 매우 쉬운 한국어 어휘들로 바꾸어 진행하였고, 이후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의 지식과 정보 전달에 있어 한국어 부분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인숙(2008)은 한국어 교사가 아닌 심리 전문가나 사회복지사가 교육을 진행할 경우 '전문가의 설명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나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워 한국어 교사를 통해 교육내용을 더 자세히 학습하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였다. 김은경(2010)역시 결혼이주여성들이 좀 더 쉬운 언어로 해 주거나 통역을 붙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들에게는 이해가 가능한 한국어로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정선(2011)은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민성혜(2011)는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부모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높여주는 부모교육프로그램,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녀 교육을 위한 모의수업 중심 프로그램, 효율적인 부모역할 습득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방법으로 다양한 창의적 기법을 적용한 프로그램 현장 적용이 용이한 지도안 형

태의 프로그램,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한 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였으며, 양육효능감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김연수(2008)는 아동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 관계를 증진하는 사회 복지실천의 도구로 개발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탄력적 부모 되기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가정 어머니들의 양육 효능감 및 전반적 양육 능력을 증진하는데 가장 큰 효과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보다 친밀하고 상호 존중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남부현과 정천석(2010)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주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도 참가 어머니들이 한국적인 자녀양육과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 방법들을 익히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그 내용들이 주로 지식 중심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부가적 접근법(additive approach)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부가적인 접근법에 근거하여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준비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새로운 업무이며 테스트인 자녀양육과 교육을 공통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 방향으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과 자녀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추어 자녀 양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노미향(2008)은 결혼이주여성 가정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 시기별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고은미

(2009)는 전북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상설화된 프로그램(찾아가는 양육서비스)과 단기 프로그램(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 사업, 문화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없음을 지적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은 이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그들이 외국인임을 감안한 또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김미숙(2008)은 모국과의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본인들의 한국어 수준, 다문화 가정 등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지원이 한국문화에 익숙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과 차별성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 자녀 연령, 한국어 수준 등의 여러 부분을 고려한 교육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신영(2006)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문화와 언어교육이 주요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동화되기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고유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폭력이라고 하였다.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국제결혼한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단체학습인 경우 동반아동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 다문화교육과 이중(한국어와 이주여성의 모국어)언어교육, 또는 삼중(두 개의 언어에 영어 추가)언어교육의 진행이 필요하며, 미래의 국력을 만들 한국 사회는 다언어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사회로 만들어감에 다언어,

다문화를 구사하는 인적 역량으로 2세 교육은 한국 사회를 긍정적인 다문화 사회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큰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매우 적은 실정이며, 그 중의 대부분은 자녀의 학업 수행을 위한 지원 혹은 상담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그 대상이 광범위하거나 학령기 부모에게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상을 좁혀 그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유아기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1) 어머니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41세의 몽골인 결혼이주여성과 만 5세의 남자아이 수호이다. 어머니는 2002년에 결혼하여 수호를 낳은 후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였고 결혼 생활 중 2005년에 몽골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당시 9세인 딸이 증도 입국하여 함께 살았으며 2011년 수호가 만 3세 때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여 연구당시, 가족은 몽골인 17세 딸과, 수호, 어머니였으며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었다.

연구자는 2013년 4월 서울 S구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인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로 만나 참여수업을 진행하면서 수호의 어머니가 자신의 나라인 몽골어의 노출을 피하고 수호에게 한국어로만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수호의 어머니가 한부모 가정임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수호와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의문이 생겼고, 어머니 자신이 초등학교 진학을 앞 둔 자녀의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움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한국말 잘 못하니까 아이가 무슨 말 하면 말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빠, 물어봐

(서) 해.” 해야 하는데 아빠 있을 때도 아이랑 말 안했어요. 나도 못하니깐 어쩔 수 없어요. 아이하고 말하고 싶지만 몽골어는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한국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국말로 노력해도 우리 아이 한국말 많이 떨어져요. 어머니께 이해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말이 잘 안돼요.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유치원에서도 어려움 있어요. 나 때문에 말공부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2013. 4. 5. 수호엄마 면담>

수호의 어머니는 수호가 만 4세 까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수호가 말을 할 때면 친구들이 수호의 말을 따라하고 놀렸지만 수호가 몽골인 엄마가 있어서 한국어가 부정확함 것임을 수호에게도 말해주지 않았고 수호의 어린이집 선생님에게도 수호의 친구들에게 몽골인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한다.

수호는 한국에서 자라는 거니까 한국말만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몽골에서 왔다고 하면 친구들이 놀리고 무시할거라 생각해요.

<2013. 4.12. 수호엄마 면담>

수호의 어머니는 요즘 만 5세가 된 수호가 집을 이사하면서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고 다니던 어린이집 보다 반 인원이 많고 학교는 더 많은 친구들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되는 상황을 알게 되면서 수호의 한글공부와 친구 관계에 대해 많은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2) 유아

만 5세 수호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서울 S구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4월에 연구자가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다. 만3세 아동부터 초등 6학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복한 책읽기’ 프로그램에서 아동과 부모 각각 대상을 50분씩 8회 동안 수업하는 동안 아동을 관찰하고, 부모님과 상담 등 적절한 교육 지원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프로그램을 진행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인 수호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에 대해 느낀 점을 서술한 연구자의 저널과 수업관찰의 내용이다.

강사: 수호야 이 거 뭐예요?

수호: 곤룡, 화!~ 퓨!~ 쉬~이!~ (수호는 입으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대화할 때 함께 사용한다)

<2013. 4. 8. 수업 관찰>

유치원에서 돌아 온 수호는 강사가 기다리는 책상으로 재빨리 와서 앉은 다음 동화책을 또 읽어 줄 것인지 물어보고 긍정의 대답에 “오 예!”하며 기뻐함. ‘내 귀는 레몬 빛’이라는 동화를 읽어주고 동화 속에서 퀴즈를 내자 동화책 내용의 인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퀴즈에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다만, 문장의 구사가 한국인 가정의 만5세와는 다소 차이가 느껴진다.

<2013. 4. 12. 연구자 저널>

수호는 본인의 이름은 한글로 쓸 수 있으나 다른 글자의 눈 맞춤이 안 되

어 있고 10 이상의 수세기를 어려워하였다.

<2013. 4. 12. 연구자 저널>

수호는 성격이 밝고 책을 읽어 준 후 책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책의 제목이나 정확한 어휘에 대해 뜻을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거나 입으로 내는 다양한 소리의 표현을 통해 수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하고자 함을 볼 때 수호는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였다.

수업이 8회 차로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수호가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들어 본 경험이 없으며, 만 5세이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동화책의 제목이 거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동화야 나와라 야! 하면 책 읽어주는데, (수호는 유치원에서 동화 들려주는 시간이 좋다고 하였다.) 엄마는 책 안 읽어줘요. 바쁘다고 하고, 나중에 할 게 하고 안 읽어줘요.

<2013. 4. 12. 수호 면담>

수호한테 한국말 책 안 읽어줘요. 내가 한국 발음 잘 못해서 수호가 배우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2013. 4. 12. 어머니 면담>

수호와 수업을 하는 동안 수호가 기본적인 교사의 질문에 반응하는 속도가 다소 늦고 질문하는 교사에게 집중하지 못하며 다소 산만함이 느껴졌으며, 어머니의 제한된 한국어 실력으로는 수호와 한국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루어졌다. 2013년 4월에서 5월까지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6월부터 8월까지의 문제점에 따른 자녀양육지원내용 및 방법을 고안하고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녀양육지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이 지닌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분석

한부모 결혼이주 가정이 지닌 자녀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S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호의 수업을 참여관찰 하였다. 참여관찰은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주1회 1시간씩 8회로 이루어졌으며, 수호의 수업참여태도, 언어사용 경향, 행동특성 등을 관찰하였다. 면담은 수호와 수업이 끝난 후 어머니와 8회 실시로 1회 30~40분 동안 이루어졌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전사하다. 또한 면담 자료와 수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유아에게서 보여진 문제점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2)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문제점에 따른 자녀양육지원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 자녀양육 지원은 어머니 지원과 유아지원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 자녀양육지원의 방향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와 장명림, 이윤진, 이정림, 민현숙, 이세원, 소수정, 송윤정(2010)의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 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와 이경아, 김민호, 오성배, 윤창국, 임명희, 김세화(2012)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어머니와 유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실시하였다.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중에 교육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한 교육내용을 추출하여, S구 드림스타트 교육 담당자와 충분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문제 상황과 그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각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즉,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인 수호 어머니의 어려움은 크게 남편의 부재로 인해 다문화 사회 이해 부족과 정체성의 혼란, 모국어 사용 배제로 자녀와 소통의 어려움, 가족 해체로 인한 한국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교육문화·정보에 취약하여 자녀의 학습지도 어려움 등 3가지 영역과 유아의 어려움은 아버지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감, 또래보다 부족한 기초 학습으로 인한 자신감 저하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문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육내용을 추출하였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 즉,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와 몽골인 중도 입국자녀와의 갈등과 같은 문제 상황 등은 그 초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표 5> 어머니와 유아의 어려움에 따른 양육지원의 방향

	어려움	필요한 교육
어 머 니 지 원 방 향	남편의 부재로 인한 다문화 사회 이해 부족과 정체성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 적응만이 아닌 공존의 필요성 인식하기 · 다문화가족의 특성 이해하기 ·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 다문화가정 학부모로서 자아 및 정체성 찾기 · 자존감과 대인관계 능력향상 시키기 · 전래동화를 통해 한국 정서와 문화 이해하기
	모국어사용 배제로 인한 자녀와의 소통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어와 모국문화의 중요성 알기 · 생활 속에서 모국어의 지속적인 노출의 중요성 이해하기 · 몽골인 문화 존 방문하기 · 몽골 전래동화 구연을 통해 자신의 모국 문화 이해시키고와 공존의 방법 모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어의 노출 꺼려함 · 한국어 습득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한국말만 사용 · 자녀의 한국어 표현에 대한 이해 부족 	
	남편의 부재로 인해 한국의 교육 문화·정보 취약으로 자녀의 학습지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연령에 적절한 양육에 대한 어려움 ·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 부모 역할 및 관계 형성의 어려움 ·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방법에 대한 어려움 ·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대화 부족 · 유아 발달에 대해 이해하기 · 독서훈련(쓰기, 읽기 훈련)하기 · 책을 통해 자녀와 관계 형성하고 소통 시도하기 · 학교숙제지원하기 · 학습부진에 대한 대처방안 찾아 적용하기 · 몽골어지원 가능한 교육관련 사이트 안내하기

유아	아버지 부재로 인한 유아 자신의 정체성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은 한국인이며 몽골인이 아니라고 우깁. (어머니와 심리적 갈등) · 몽골인과 몽골어에 대한 거부 반응 · 유치원 친구들에게 자신의 엄마가 몽골인임을 소개하기 꺼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몽골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 수호가 한국인임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어머니의 자세가 필요함을 인식하기 · 자연스럽게 몽골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갖기 · 다양한 가정에 대해 이해하기 · 몽골인 엄마와 함께 자신감 회복하기
지원방향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의 부재 및 왜곡 · 어른 남자에 대한 두려움 · 엄마와 갈등 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과 결혼, 이혼에 대해 이해하기 · 다른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 엄마와의 관계 회복하기
한글과, 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신감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상황 파악이 어려움 · 한글의 읽기와 쓰기의 수준이 또래보다 낮음. · 어머니의 학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활 속에서 학습 분위기 조성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글과 수의 기초를 익힘으로 인한 자신감 회복 지원하기 · 소그룹 수업으로 인지 및 사회성 발달 지원하기 	

(2)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양육지원 내용과 방법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을 위한 세부 교육지원 내용은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중에 교육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한 교육내용을 이주여성 가정에 관한 기존 문헌 및 다문화관련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추출하여 구성한 후 교육하였다. 각 문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육내용이 추출된 후 어머니와 면담, 참여관찰수업, 유아를 위한 소그룹 수업 등의 형태로 자녀양육지원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총 24회기로 구성되었다.

① 어머니를 위한 양육지원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은 크게 남편의 부재로 인해 한부모 이주여성으로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 모국어 사용 배제로 자녀와 소통의 어려움, 가족해체로 단절된 한국문화와 교육문화·정보에 취약함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지도 어려움 등 3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적 지원의 내용을 표 6과 같이 구성한 후 실시하였다.

어머니를 위한 양육지원은 총 13회로 진행되었으며 1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실시되었다.

<표 6> 어머니를 위한 양육지원 내용 및 구성

양육지원	시간/차시	방법
-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 다문화가정 학부모로서 자아 및 정체성 찾기 -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3차시	교육자료 제공, 시범보이기, 설명하기, 토론, 심층면담
- 모국어와 모국문화의 중요성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에서 모국어의 지속적인 노출이 필요함. - 이중언어를 생활화 할 수 있는 방안 	<p>교육자료 제공, 설명하기, 인터넷 서치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 발달과정 교육 - 한국의 교육문화·정보 제공 -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모색 - 전래동화 구연을 통한 상호작용 방법 안내 - 자녀와 연구자의 수업 관찰 	<p>7차시</p> <p>참여관찰, 교육자료 제공, 시범보이기, 설명하기, 보은, 권선징악, 효, 전래동화선정(주제-정직, 우애, 기원, 사랑·약속) 후 구연 연습, 숙제도움이 및 진학할 초등학교 정보안내</p>

② 유아를 위한 교육지원

한부모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아버지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감, 또래보다 부족한 기초 학습으로 인해 자신감 저하 등으로 범주화 하고 이를 위한 교육적 지원의 내용을 표 7과 같이 구성한 후 실시하였다.

<표 7> 유아를 위한 교육지원 내용 및 구성

교육지원	시간/차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 - 엄마나라, 아빠나라 - 언어가 달라요 - 엄마를 사랑해요 	2차시	<p>심층면담, 동화, 멀티미디어 자료, 미술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그리고 이혼 -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 가족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 - 훌륭한 한부모 가족의 위인들 	2차시	심층면담, 동화, 멀티미디어 자료, 미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소개해 보아요 -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수·한글 지도 - 또래와 놀이 공감 - 초등생활 안내 	7차시	참여관찰 그룹수업진행, 교재활용, 또래 상호작용 관찰

3.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S구 드림스타트 교육지원 담당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연구 승인을 받았다. 그 후에는 연구 참여자인 몽골인 한부모 이주여성 가정인 수호네 가정을 방문하여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 및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는 모두 녹음하여 전사할 예정인 것과, 논문에 사용된 유아, 어머니의 이름은 가명으로 쓰일 것임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시한 후 어머니께 확인 서명을 받았다.

1) 심층면담

본 연구는 2013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S구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한부모 이주여성 가정의 연구 참여자 어머니와 유아에게 수업을 진행하며 드러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계획하였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지 양육지원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와 자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정보나 의견, 신념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의 방법으로서 특히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행동, 감정, 혹은 그들의 주변세계를 해석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자료수집방법이다(신옥순, 1991; Lincoln & Guna, 1985, 봉진영, 2011에서 재인용). 한부모 이주 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유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경험, 요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한부모 이주 여성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상황의 전후 맥락적 상황에 대한 것으로써 어머니의 이주 생활 경험과 육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와 어머니의 반성적 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2)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결혼이주 여성과 유아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을 위한 1차 관찰과 자녀양육 지원 과정에서의 행동과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2차 관찰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어려움' 분석에 관한 1차 참여관찰은 2013년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머니 유아 각각 8회, 1회 40분 정도씩 이루어졌다. 참여관찰 동안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에 중점을 두고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과 수업내용을 어머니에게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2차 참여관찰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어머니는 주 1회 40분에서 1시간씩 7회와, 유아는 주1회 1시간 30분씩 7회 실시되었다. 참여관찰은 어머니

가 자녀에게 전래동화를 구연해 주는 활동과 자녀의 문제 상황 지원을 위한 소그룹 수업에서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과, 기본적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한글·수 개념 수업에서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찰 내용은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 한 후 전사하였다.

3) 동영상 촬영

동영상 촬영은 유아와의 수업 및 어머니와의 면담 시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설치하고 촬영한 후 문제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과정을 녹화한 것 중 의미 있는 자료는 논의를 거쳐 분석한 후 문제점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4) 기타자료

유아의 교육 지도를 위한 교재와 어머니에게 전달한 양육자료, 인터넷 자료, 기타 동화책과 부모교육용 지도서, 만족도 검사 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참여관찰을 전사한 현장노트와 비디오 녹화자료 및 면담 전사본, 유아의 초등 준비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교재를 분석한 결과 등이다.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어머니의 반

성적 인식의 변화와 긍정적 변화 및 갈등에 대한 상담 자료를 녹음한 자료와 전사본 등을 수집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이 진행 되는 동시에 수시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Spradley,2006; 조미영, 201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와 질적 연구를 하는 다른 동료들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유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양육지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와 자녀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면담을 통해 파악하여 심층 분석하였고, 어머니와 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자기반성적 보고와 유아와 어머니의 참여 관찰 자료를 분석하고 범주화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유아의 어려움,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지원 가정에서 나타나는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자녀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유아의 어려움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인 수호 어머니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은 크게 남편의 부재로 인해 혼자 한국인으로 살아내기, 모국어 사용의 배제로 인해 자녀와 소통의 문제, 남편 부재로 인한 한국사회와의 단절로 자녀교육 어려움 가중으로 나타났고, 유아기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아버지가 부재하고 문화가 다른 어머니와 소통의 문제로 인한 정체성

혼란, 아버지의 부재로 겪는 심리적 불안감, 기초학습 능력이 또래보다 부족함으로 인한 자신감 저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어머니가 경험하는 어려움

(1) 남편의 부재: 홀로 한국인처럼 살아내기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인 수호의 어머니는 수호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수호의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배려나 한국문화의 이해를 위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책임은 모두 수호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할 때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때마다, 몽골식으로 키우면 수호가 한국인으로 자라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혼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수호의 어머니는 생김새가 한국인과 닮아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주변에서도 외국인인줄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수호의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몽골인임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차별을 덜 받는 방법이라 여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항상 밖에 나가면, 외국인이나고 물어볼까봐 겁이 나고 자신이 몽골인 이여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자녀들이 차별받을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수호의 어머니는 굳이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보지 않으며 스스로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또 외출을 잘 하지 않고 일이 없으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말도 몰라요. 봉제공장에서 일 할 때 내가 말 안

하면 한국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물건 살 때 말하면 시장에 아줌마가 '어머 외국 사람이예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국제결혼 했어요?' 하고 말 많이 물어봐서 싫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말 많이 안 해요. 우리 수호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2013. 5. 10. 어머니 면담)

사람들이 내가 몽골사람이라고 하면 몽골에도 TV있냐고 묻고, 몽골 사람은 모두 천막에서 사는 거 아냐? 학교도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 싫어요. 몽골이 한국 보다 아주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속상해요.

(2013. 5. 24. 어머니 면담)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인 수호 어머니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른 문화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성 간의 충분한 교제시간이 없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더구나 한국 국적은 취득했지만 한국인이 아닌 채로 한국인으로 키워야 할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혼자 감당하려니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더욱이 수호 어머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꾸려가느라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의 이해나 적응을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시간도 없었고 한국에 있는 몽골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조차 스스로 망설여져서 현재까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함께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몽골 아이라고 알려지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데 내가 발음이 틀리게 나오잖아 그걸 애들이 따라 배울까봐 그런 게 걱정이 돼요. 똑바로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상으로 안 되니까 미안해요.

(2013. 5. 3. 어머니 면담)

몽골에서는 일도 하고 시간이 있으면 쇼핑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는 가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수호가 말 안 듣고 돈 없을 때는 몽골에 갈까? 하고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몽골에 갈까? 하고 농담하면 자기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산다고 말하고 엄마는 몽골 사람이지? 할 때 내 마음이 슬펐어요.

(2013. 5. 24. 어머니 면담)

결혼이주여성인 수호 어머니는 남편이 부재하기에 한국의 언어 및 문화,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안내를 받거나 습득할 기회마저 없어진 것이다. 지역사회의 도움에 대해 어머니 개인적 성향으로 수동적이고, 게다가 다문화 가족의 삶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화와 서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표현할 기회를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채 한국에서 홀로 한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되었던 것이다.

(2) 모국어 사용 배제로 인한 자녀와의 소통 어려움

결혼이주여성인 수호 어머니는 수호를 한국인으로 기르려면 아이에게 한국어만 들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수호가 태어나서 만 5세가 될 때까지 엄마의 모국어인 몽골어는 거의 들려준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수호는 몽골어를 하나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호가 만 5세가 되어 유치원에 가면서 알게 되는 단어나 경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자신이 처음 듣는 한국어 단어나 수호가 경험하

여 들려주는 상황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한국말 잘 못하니까 아이가 무슨 말 하면 말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빠, 물어봐(서) 해“. 해야 하는데 아빠 있을 때도 아이랑 말 안했어요. 나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이하고 말하고 싶지만 몽골어는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한국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국말로 노력해도 우리 아이들 한국말 많이 떨어져요. 엄마니까 이해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말이 잘 안돼요.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2013. 4. 5. 어머니 면담)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인 수호 어머니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크게 부족하고 어머니 개인적 성향으로 지역사회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편이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해 있는 친족들과의 관계도 없는 편이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없고 특히 육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양육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하였다. 수호의 어머니는 자신이 한국어로 대화하면 아이의 한국어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확실히 전달하고 싶은데 아이가 못 알아들을 때 있어요. 급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애가 하는 말 못 알아들을 때는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일곱 살 되니까 어떤 때는 무슨 말이지 대화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2013. 4. 12. 어머니 면담)

몽골에서 내 사촌 동생이 아는 부부가 한국에 사는 데 아기 두 살인데 데리고 왔어요. 엄마, 아빠가 몽골어로 이야기 하는 거 다 알아듣고 심부름도 잘 하고 집에서는 몽골말 쓰고 어린이집 가면 한국말 쓰는 선생님이랑 말 잘 알아듣는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애기가 엄마랑 몽골말 잘 하는 거 보니까 부럽고 수호에게 미안했어요. 내가 몰라가지고 수호에게 몽골말 안 해주고 지금도 수호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답답해요.

(2013. 10. 25. 어머니 면담)

수호 어머니는 수호가 평소 말투에 ‘미안해’라는 단어를 습관처럼 쓰고 있어 고민이라고 하신다. 수호는 만4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만5세가 되어 유치원에 입학하였다고 한다.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발음이 부정확한 수호를 놀리자 수호가 친구에게 화를 내면서 어린이집 교사가 ‘미안해’라고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신다. 집에서도 ‘엄마 미안해’라고 사소한 일에도 말을 할 때면 “수호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냐. 왜 수호가 미안해? 하지 마.” 라고 하시며 울먹이셨다. 상황에 맞는 한국어 표현을 외국인 어머니가 단독으로 가정에서 지도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2013. 4. 26. 연구자 저널)

사례에서와 같이 수호의 어머니는 언어 능력 뿐 만 아니라 자녀 양육, 교육 역량 부족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졌다. 특히, 또래 집단과 다른 가족 구성,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자녀가 유치원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나 조언을 해주지 못할 때 정서적 갈등을 경험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수호가 유치원 다니면서 말을 하면 엄마가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나한

테 "엄마 바보야?" 했을 때 슬펐어요. "엄마는 그 거도 몰라?" 지금 엄마 한국말 했어? 몽골말 했어? 할 때 몽골말을 가르칠 걸 그랬다고 후회해요.

(2013. 10. 25. 어머니 면담)

위 사례에서 보듯 한국어가 주가 되는 언어사용에 있어서 수호 어머니는 자녀와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하였다.

(3) 남편 부재로 인한 한국사회와의 단절: 자녀교육 어려움 가중

수호는 자신의 이름은 쓸 줄 알지만 책을 혼자서 읽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수호는 유치원에 다녀오면 자기만 한글을 모른다고 엄마에게 자주 이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수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한 숫자 세기는 15정도 까지는 가능하지만 16, 17, 18을 혼동하고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은 할 줄 모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는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수호가 학교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였다.

수호가 '나만 못 읽어. 친구들이 나만 못 한 대'. 하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전할 때면 너무 속상해서 '너만 왜 못해. 유치원에서 안 배웠어?' 하고 또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낸다고 한다.

(2013. 4. 12. 연구자 저널)

내가 아이를 돌보면 한국말이 늦다고 걱정해서 3살 때부터 어린이집 보

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아직 아기니까 말을 못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일곱 살에 유치원에 보내면 다 배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글자 많이 안 가르쳐 주고 친구들은 다 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 학원에 많이 다니지만 몽골에서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줘요.

(2013. 4. 12. 어머니 면담)

사례에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의 부재로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대한 지식을 도움 받지 못함으로 인해 자녀양육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유치원에 보내면 다 되겠지 하는 과도한 기대감을 갖거나 부족한 학습을 어떤 식으로 도와야 할지에 대한 대처에도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남편 없이 다 내가 해야 하는 것, 유치원에 가는 것도, 선생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도 너무 말 못해 가지고 선생님한테서 편지 왔는데 이해를 못해 가지고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공부 시켜달라고 했는데 바우처로 학습지 00선생님이 왔어요. 그런데 금방 대충하고 가버리니까 수호 글자 몰라요.

(2013. 5. 10. 어머니 면담)

수호와 동화 수업을 하면서 수호가 의성어 의태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하며 갑니다.’ 라는 문장을 읽고 호랑이가 어떻게 가는 모습일까? 하는 교사의 질문에 수호는 네발로 뛰어가는 모습을 흉내 내며 ‘이렇게요’ 하였다. 어머니께 ‘어슬렁 어슬렁’이란 말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더니 어머니는 그 말을 모른다고 하였다. 수호는 텔레비전 만화속의 효과음을 일상 언어에 섞어 사용한다. 예를 들어 수호는 ‘휴~욱, 쉬쉬~, 푸, 파’하며 입으로 내는 소리와 행동을 섞어

표현하며 이런 수호의 행동은 교사의 질문에 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다소 과장되어 보이기도 하고 산만하게 보이기도 한다. 수호는 듣고, 본 행동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한국말 속에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의성어 의태어의 관용 표현에 대한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2013. 5. 10. 연구자 저널)

사례에서 보듯이 수호의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모든 일을 한국인 남편 없이 혼자서 해결해야 했고 한국어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의 한국어로만 자녀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유아는 언어의 확장이나 적절한 피드백이 없이 또래의 유아가 경험하는 모국어 습득과정과 다른 경로로 언어를 습득하고 있기에 이는 유아의 인지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 이해 부족으로 유치원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과,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논할 대상이 주변에 없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수호 어머니와 같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여성들은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기에 주변의 도움 없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유아가 경험하는 어려움

(1) 아버지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

수호 어머니는 수호가 한국인으로 자라기를 희망하여 한국어로만 소통하고 자신이 몽골에서 왔다는 것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호는 만 5세로 유치원에 다니기 전까지 자신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엄마가 몽골 인이니 수호는 몽골인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하면서 혼란스러워했다고 하였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수호는 한국 사람도 되고 몽골사람도 된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한국 사람만 할 거예요. 친구들이 몽골사람이라고 하면 싫어요.

(2013. 4. 26. 수호 면담)

내가 한국말 쓰고 수호가 한국에서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 한국말은 잘 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수호가 몽골사람 안한다고 하고 자기는 몽골사람 아니라 하면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너도 몽골사람이야. 하고 나도 소리 지르고 수호는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게 되요.

(2013. 4. 26. 어머니 면담)

사례에서 보듯이 수호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상호작용 했던 기억이 많이 없다고 한다. 유치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수호가 한국 사람도 되고 몽골 사람도 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은 한

국 사람만 될 거라고 하였다. 수호는 어머니에 의해 자신이 한국사람 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유치원에 다니면서 어머니가 몽골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수호 어머니 또한 수호가 한국인으로 살기를 바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몽골에서 왔음을 수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수호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해를 도와줄 아버지의 부재는 어린 수호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수호가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여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어머니가 수호에게 몽골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어머니: 몽골사람 중에 칭기즈칸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어.

수호: 한국 사람이 왕 이야. 왕이 힘 제일 세. 몽골사람은 왕 아니야. 엄마보다 내가 더 왕이야.

어머니: 몽골사람도 왕이야. 칭기즈칸은 훌륭한 왕 이었어. 수호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수호도 몽골사람이야.

수호: 아니야. 수호는 한국 사람이야. 엄마 미워!

(2013. 11. 6. 참여관찰)

수호의 어머니는 수호가 차츰 커가면서 어머니가 몽골사람이라고 알게 되면서 엄마나라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할 때면 어머니 자신이 반사적으로 몽골에 대해 거부하는 수호와 맞선다고 하였다. 연구자와 면담하는 동안 어머니 자신이 수호에게 몽골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스스로 몽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노출이 없었으며 수호의 입장이 되어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 수호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돌이켜보니 반

성이 된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느끼기에 수호의 어머니는 수호를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한국인의 대표로 때로는 남자의 대표로 인식하고 어머니도 모르게 수호와 맞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면담이 진행되면서 어머니가 스스로 반성하며 수호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에 후회도 하고 수호의 행동이 이해된다고 하였다. 면담을 하는 동안 어린 수호도 그동안 혼란을 경험했을 생각을 하니 내 마음도 몽클하며 수호와 엄마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빠른 모색이 필요함을 느꼈다.

(2013. 11. 6. 연구자 저널)

위의 사례는 수호에게 몽골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들려준 적이 없는 수호의 어머니가 인터넷 자료(몽골어 학당, cafe.daum.net/Mongol)를 보면서 수호에게 몽골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 준 후, 어머니가 칭기즈칸에 대해 수호에게 설명하는 도중에 생긴 일이다. 어머니가 몽골에도 칭기즈칸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자 수호는 한국 사람이 왕이고 힘이 제일 세다면 몽골에도 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자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 시기에 수호는 유치원에서 ‘왕이다’라는 표현을 알고 왔는데 그 의미는 친구들이 게임을 이겼을 때 ‘앗싸, 내가 왕이지’라고 말 한다고 하였다. 엄마가 몽골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칭기즈칸이 왕 이였다는 말을 수호는 ‘몽골이 왕이다’라는 유치원에서 접했던 표현으로 여기고 몽골이 한국보다 왕이라고 말하는 엄마에게 항의하고, 거부하고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몽골인인 엄마도 ‘몽골이 왕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둘 간의 이야기가 중단되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수호와 엄마는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수호는 자신을 다른 아이들과 ‘다른’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다문화가정’이라 불리고 시선을 받자, 자신의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자신을 ‘일반’ 아이들과 차이가 있는 ‘다른’ 존재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임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집에는 자신을 지지해 줄 아버지도 안 계신 상황인 것이다. 수호가 전혀 의식하지 않던 ‘차이’가 ‘차이’로 그것도 사회적으로 ‘남과 다르게 부족한’의 부정적인 차이로 자신에게 여겨져 수호는 혼란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2)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수호 어머니는 수호가 만 3세 되던 2011년에 수호의 아버지와 이혼하였다고 한다. 수호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도 수호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관심 없이 없었고, 안아주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만을 보아서인지 수호는 남자 어른을 보면 두려워하고 울면서 다가가기 꺼려했다고 하였다.

수호가 수영장에 처음 갔는데 남자 탈의실에 엄마는 못 들어갔는데 수호가 남자 선생님을 보자 막 울고 무섭다고 엄마, 엄마 소리 치고 수영 안한다고 했어요.

(2013. 5. 31. 어머니 면담)

수호에게 어머니로부터 들은 수영장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니, 남자 선생님이 무서울 것 같아서 울었다고 하였다. 수호의 어머니는 수호가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후 남자 어른을 만나 본 적이 거의 없다는 말을 해주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수호가 남자의 역할이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모델로서 경험할 기회를 놓쳤기에 유아기를 거치는 동안 제 발달 영역에 어떠한

측면·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살아가는 수호는 어느 정도의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졌다.

며칠 전에 수호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함께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처음엔 친절했는데 내가 수호 쳐다보느라 잠깐 골목에서 길을 잘못 말했더니 택시 아저씨 나한테 ‘외국인이면 진작 말 해야지요’하며 큰소리로 여러 번 얘기해서 택시 뒤에서 나한테 기대고 있던 수호가 갑자기 큰소리로 ‘아저씨, 우리 엄마가 말 했는데 왜, 말 안했다고 그리고 엄마에게 자꾸 뭐라 하세요?’ 하며 택시 아저씨와 맞서서 덤비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2013. 5. 31. 어머니 면담)

사례를 들려주며 어머니는 수호가 택시 아저씨에게 맞서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면서 어느새 커서 엄마를 지켜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든든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지만 한 편으로는 어른한테 그렇게 덤비다가 혼이라도 나가나 엄마가 없는 곳에서도 아무에게나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면 어찌나하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 수호는 길을 잘 못 든 책임을 엄마에게 전가하는 택시 기사님에게 엄마를 지켜주기 위해 맞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수호가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역할을 기대 받게 됨으로서 수호가 역할 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졌다.

(2013. 5. 31. 연구자 저널)

수호가 한국 드라마 보면서 아빠들 나오고 그러면 ‘치~ 거짓말’하고 화내고 그래요. ‘저런게 어딴어.’ 하고 아빠가 아이랑 놀아주거나 놀이동산 가

는 거 나오면 자꾸 거짓말이라고 할 때 수호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수호 아빠는 나이도 많고 수호가 아빠의 안 좋은 모습 많이 봤어요. 그래도 자기는 아빠 있다고 해요.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는데 어쩌다 만나면 금방 또 싫어하고 아빠 가라고 하고 그래요.

(2013. 5. 31. 어머니 면담)

수호의 아버지는 어머니 보다 10살이 더 많은 만 52세이며 자녀는 수호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혼 후 한두 번 수호와 만났는데 수호가 아빠를 만나기 전에는 아빠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날 날을 기다리다가도 막상 아빠를 보면 오히려 가라고 하고, 싫다는 말을 들어내어 하여 아빠 또한 그렇게 거부하는 수호를 잠시 지켜보다가 금방 돌아간다고 하였다. 수호의 어머니는 그런 아빠 모습이 너무 싫다고 하면서 아빠와 별다른 대화 없이 헤어진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수호에게 아버지와 이혼을 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수호가 아버지에 대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았고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수호가 아직 어려서 엄마가 아빠와 함께 살지 않는 이혼에 대해 궁금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해보았다고 하였다. 가끔 아빠 좋아? 안 좋아? 하고 물어보면 수호가 안 좋아! 하고 대답하는 것에 스스로 이혼한 것을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면담을 진행하면서 수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수호가 커가면서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황이 수호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였다.

(2013. 5. 31. 연구자 저널)

(3) 자신감 저하

수호의 어머니는 자신의 부정확한 한국어 이해와 정규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이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 수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의 언어발달 또한 미숙하다. 다음은 수호가 한글의 어휘와 수에 대한 이해 부족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수호가 동화의 표지를 읽고 동화를 예측하기에서 표현력이 매우 부족하며 연구자의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엄마와 한국어로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한글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새로운 어휘의 습득이 또래보다 많이 늦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시간에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2013. 12. 6. 연구자 저널)

교사: (표지에 흥부네 가족이 박을 타는 그림을 보고)무슨 그림일까?

수호: 감..(박을 감이라고 말함)

교사: 아, 이것은 ‘박’이라고 한단다. 겉은 매우 딱딱해서 속을 파낸 후 겉은 말려서 ‘바가지’나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해. 속은 싹싹 긁어서 먹을 수 있단다. 수호는 ‘바가지’알아요? (수호와 엄마는 ‘바가지’를 모른다.)

(2013 .12. 27. 수호 수업관찰)

수호는 10까지의 수세기는 가능하나 10에서 20까지의 수세기에서 16,17,18을 셀 때 혼동을 하고, 물건을 세는 단위 즉, 몇 개, 몇 명, 몇 마리, 몇 대, 몇 자루 등의 기본적인 단위의 쓰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부

분 '몇 개'라고 답한다. 교사가 '여기 연필이 몇 자루 예요? 하고 물으면 '3 개'라고 대답하는 등 교사가 앞서 말한 단위의 쓰임을 바로 모방하지 못한다.

(2013. 5. 24. 수호 수업 관찰)

수호는 다른 유아들과 함께 어울려 놀이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그룹 수업에서 친구들과 게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교재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교사의 질문에 대한 반응이 늦고 주의 집중 시간이 짧으며 주어진 교재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래보다 부족하고 대체적으로 교재를 혼자 힘으로 바르게 찾아 몇 쪽을 펴거나,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미흡하였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재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고 친구들이 순서대로 발표하는 시간에 수호는 자신은 몰라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자신이 한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되는 것 보다 자신은 발표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수호: 저는 한글 몰라요.

교사: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 수호가 모르는 글자는 도와줄게. 수호가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___입니다.' 하고 밑줄이 그어진 부분에 함께 적어보자.

수호: 저는 어차피 한글 몰라요.

(2014. 1. 10. 수호 수업관찰)

수호는 아직 자신이 친구들과 비교하여 한글이나, 수가 얼마나 미흡한지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나 자신이 발표하거나 말을 할 때 자신의 발음이나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 걱정하는 것 이었다. 이는 수호 스스로 자신이 잘 못한다고 친구들에게 미리 이야기함으로써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친구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표현 같았다.

수호가 집에서는 개구쟁이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유치원에 수업에 엄마들도 갔는데 옆에 남자아이가 수호를 자꾸 건드리고, 때리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들이 뒤에서 보고 있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수호는 손도 못 들고 집에 와서 ‘너 그거 아는 거잖아. 왜 손 안 들었어?’ 물어보면 ‘그냥’ 이라고 대답해서 막 속상해요. 내가 보기에는 수호가 자신도 없고 유치원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013. 11. 15. 어머니 면담)

수호가 하루는 유치원에서 친구랑 부딪혀서 이가 빠지고 피가 났었다고 하는데 수호 옷에 피가 묻어있어서 어머니는 매우 놀라셨다고 하였다. 수호에게 물어보니 ‘안 아파. 친구가 모르고 부딪힌 거야.’ 하며 유치원에 전화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한다. 수호의 빠진 이는 평소에 다소 흔들렸고 어차피 이갈이를 해야 하는 이였지만 유치원 선생님께서도 전화도 없고 수호는 유치원에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여 어머니는 유치원에서 수호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지 몹시 걱정이 되었다고 하였다. 후에 선생님과 전화 통화 하여 수호가 말한 것처럼 비슷하게 전해 들었지만 수호가 아프다고 유치원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 같아 어머니는 속상하다고 하였다.

(2013. 12. 27. 어머니 면담)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장기에 부모의 언어적 자극을 통해서 언어발달 및 인지발달 및 인지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수호의 경우 아버지가 부재하고 주요 언어 입력 제공자인 외국인 어머니는 자연히 필요한 수준의 언어적 입력을

충분히 못하고 있기에 수호는 언어적, 인지적으로 발달이 다소 늦었으며 이는 유치원에서 또래와의 관계에 자신감 저하로 나타나고 있었다.

2. 양육지원을 통해 나타난 어머니와 유아의 변화

자녀양육지원을 통해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자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참여자와 서로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어머니는 양육지원을 통해 유아의 발달 단계를 알게 되었고 자녀와의 정서적 소통 문제를 개선하고자 구연동화를 익히는 등 자녀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어머니 역할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유아는 교육 지원을 통해 거부하였던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고 혼란스러워 하던 스스로의 정체성에 변화가 생겼으며, 아버지의 부재에서 기인한 불안한 정서에 대해 개선 방법이 모색되었으므로, 소그룹 수업을 통해 유아는 인지적 측면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차츰 자신감을 가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교육지원을 통한 어머니와 유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변화

(1)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갖기

수호의 어머니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관습은 단시간 내에 쉽게 동화되거나 흡수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문화적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남편으로부터 한국 문화를 습득하거나 안내받기 힘든 상황이기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수호의 어머니가 겪었던 문화적 갈등에 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특히, 수호의 어머니는 수호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수호 아빠랑 함께 살 때는 이상한 게 많았어요. 술 많이 먹고, 아기랑 놀아주지 않고, 집에 오면 누워서 그냥 계속 자다가, ‘물 가져와 , 이거 가져와’ 라고 얘기처럼 혼자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한국남자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2014. 12. 20. 어머니 면담)

한국 드라마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이랑 우리 집하고 많이 달라요. 한국 아빠가 아이랑 부인한테 하는 것도 달라요. 수호 아빠는 나이도 많고 드라마랑 너무 달라요.

(2014. 12. 20. 어머니 면담)

수호아빠 말투가 싫어요. 가져와, 이거 해, 다했어? 욕하고, 무섭게 소리도 질러요. 한국에 존댓말 있는 거 알아요. 그거는 가족에게 안 쓰는 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2014. 12. 20. 어머니 면담)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호의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집에 있으면 아기랑 놀아주기는커녕 잠만 잤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수호 엄마에

게 시키고 명령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호의 아버지 행동은 수호 엄마에게 ‘한국 남자는 참 이상하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다고 하였다.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경험한 수호 어머니에게 연구자는 드라마는 한국의 보편적 가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집이나 아빠의 모습이 모든 한국 아빠를 대표하는 모습은 아니며, 게다가 한국 안에도 지방색이 있어서 지역마다, 사람마다, 가족마다 풍습이 있으며, 결혼을 통해 맺어지면 한동안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음을 이야기 해 주었다. 또한 한국 내에서 다문화 관련 커뮤니티에 소속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한 수호의 어머니에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연구 자료에 소개 된 사례들을 들려주었다. 이를 전해들은 수호의 어머니는 문화적 갈등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인지하였다.

연구자는 다문화 관련 논문 속에서 이주여성의 인터뷰 사례를 발췌해서 읽어주었다. 사례 속에는 수호의 어머니처럼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사례도 있고, 자녀의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사례, 한국 문화가 자신의 문화와 달라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 등이 있었다. 수호의 어머니는 ‘맞아요’ 하며 사례에 공감하였다. 어머니는 이주여성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생각해 보니 몽골인도 다 다르다고 웃으셨다.

(2014. 1. 24. 어머니 면담)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 한국음식, 한국문화 배워야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진짜 한국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뭐하고 살지?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수호가 어른 되면 몽골하고 한국에 같이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몽골말, 몽골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줘야한다는 거를 생각하게 되어서 마음이

좋아졌어요. 수호하고 몽골에 같이 가면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수호를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해요.

(2014. 1. 24. 어머니 면담)

수호의 어머니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다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지, 몽골로 가고 싶은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등등 자신과 수호의 미래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고 하였다. 수호 어머니는 한국에서 문화적 권리를 인정받았거나,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여유 없이 스스로를 감추고 내세우지 않으려 사는 것이 차별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가 커 갈수록 자신은 점점 몽골이 그리워지고 연구자와 수업이 진행되면서 수호에게 모국의 문화를 가르쳐서 수호가 어른이 되면 몽골에 함께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수호한테 몽골에 대해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나도 수호가 몽골사람과 한국 사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나도 몽골사람이라고 숨기는 거 안하고 수호를 데리고 몽골문화촌에도 가볼 거예요.

(2014. 2. 28. 어머니 면담)

이제, 수호도 엄마가 몽골사람인거 다 알고, 나도 조금씩 수호한테 몽골말 가르치고 수호한테 잘해주고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동화공부 하고 나면 수호가 ‘오늘, 무슨 동화 읽어줄 거야?’ 하고 기다리는데 나도 마음이 좋고 조금씩 몽골말 하면서 하고 있어요.

(2014. 2. 28. 어머니 면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다

문화 가족을 만들어 낼 수 있겠지만, 한부모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인 수호 어머니는 혼자서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자신의 모국 문화를 토대를 접근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은 자녀는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어 이주여성 어머니와는 다른 가치관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결혼이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혼란이 생기고 자녀양육에 자신감을 잃었던 것이다. 모국 문화와 다른 삶과 생활에 직면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심리적인 벽을 쌓지 않도록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신의 문화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될 때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밖에서 내가 말 안하면 한국 사람으로 보이고 수호랑 밖에 나가도 말 많이 해주지 않고 그냥 차타고 갔다가 오고, '이건 뭐야, 뭐라고 해'. 라고 선생님이 수업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말 해 줄걸. 몰랐어요. 몽골말 수호가 얘기 때 가르쳐 줬으면 지금 내가 답답해 하는 거 적었을 텐데, 몰랐어요. 이제까지, 나 후회하고 있어요.

(2014. 2. 28. 어머니 면담)

수호의 어머니는 수호가 연구자와 인터넷을 통해 몽골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을 참관 한 후 어머니 자신이 몽골인으로 몽골문화와 몽골어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수호를 한국인으로 키우기 위해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은 것은 자신이 관련 지식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생긴 것이라며 지난 시간이 후회된다고 말하였다. 수호의 어머니도 한국 문화에 무리 없이 적응하기를 꿈꾸었을 것이다. 한국의 가족

주의적 가치관 (개인보다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 간 사회 경제적 유대의식 등)과 몽골인인 수호 어머니가 생각하는 가족주의적 가치관 (가족 내 남녀 평등적 성역할, 부부중심의 가족 문화, 출가 후 가족에 대한 부양의식, 몽골의 독특한 가족 혈연관계 및 가족 생활 등)은 동시에 이해되었어야 한다. 두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이, 부부간 서로의 노력 없이 상대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수호 어머니도 배우자와 서로 애해가 부족하여 ‘이혼’이라는 가족 해체를 초래한 것이라 하였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어머니는 혼자서 문화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어머니 자신의 뿌리가 되는 원문화(original culture)를 뒤로 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인 가족의 도움이 부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신감과 외부 환경에 대해 긍정적 태도로 변화할 수 있을지는 단시간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2) 모국 문화와 모국어에 자긍심 갖기

수호의 어머니는 수호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수호의 한국생활을 위하여 한국어로만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판단하였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차츰 모국어와 모국문화에 대한 자신의 이전 지식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수호의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어로 자녀와 교감을 나누고,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지도하고, 책을 읽어 주며 유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다면, 목표언어인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했을 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 자신과 수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이혼이라는 가족 해체를 겪으며 주변과 교류가 단절된 수호네 가족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지식 및 정보제공 또한 미흡했기에 연구자 스스로가 반성과 함께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다.

연구자는 객관성을 가지고 연구 참여자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양육지원을 설계해야하지만, 수호 또래의 자녀가 있는 연구자에게는 이주여성인 엄마와 자녀가 서로 감정 소통에 문제가 있는 수호네 사례가 안타깝게 느껴진다. 수호의 어머니는 주변의 한국인 지인이나 커뮤니티와의 관계도 맺지 않고 낯 선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가 과연 얼마큼 습득될 수 있을지, 수호는 일상의 경험을 어머니의 설명 없이 본인의 짐작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를 진학하면 학교생활이 원활할지에 대한 걱정과, 수호의 어머니가 좀 더 일찍 수호가 영아기 일 때 엄마의 모국어와 모국 문화로써 양육 했다면 현우는 지금 엄마와 안정된 정서의 교감을 나누었을 텐데, 한국인 남편과 주변의 도움 없이 이주여성인 어머니 스스로의 시행착오에 대해 후회한다는 수호 어머니에게 연구자는 감정이 이입되고, 양육지원 과정에서 어머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요즘,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2014. 2. 14. 연구자 저널)

외국에 거주하는 많은 해외 이주민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듯이 결혼이주 여성인 수호 어머니도 자신의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잊지 않고 거기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해가는 이중 언어 화자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자녀와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하며 앞으로 모국문화 전달과 모국어의 사

용을 시도하고자 하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선생님과 수업하기 전에는 몽골을 숨기고 도움이 (수호가 한국에서 사는 데) 안 될 줄 알고 몽골말도 하나도 안했는데 이제, 수호는 몽골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된다고 하니까 수호가 저번처럼 소리 안 지르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내말을 듣는 거 같이 느껴지니까 나 기뻐어요. 일찍 가르쳐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요.

(2014. 2. 7. 어머니 면담)

수호하고 컴퓨터 보면서 몽골얘기 하니까 나 너무 기뻐요. 현우가 물어보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전에는 ‘빨리먹어, 하지만, 안 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나, 후회해요.

(2014. 2. 21. 어머니 면담)

수호한테 몽골신발 보여주고 몽골에서 아이들이 신발 신는데 앞쪽에 삐죽해가지고 이거로 싸움놀이 하면서 논다고 하니까, 수호가 ‘이 신발 힘이 세게 해주는 구나. 빨리 달탈 수도 있겠다.’고 좋아하고 신어보고 그랬어요. 몽골문화에 대해 자꾸 말해주니까 이젠 수호도 잘 듣고 그래요.

(2014. 2. 21. 어머니 면담)

내가 몽골말 조금씩 하고, 수호한테 한국동화 읽어주고 밤에 누워서 잘 때 선생님 얘기 생각나서 몽골말로 동화 이야기 해주면, 이젠 수호가 싫다고 안하고 자기도 몽골인도 된다는 거를 조금 인정하고 몽골말로 해주는 동화 듣고, 가끔 누나하고 내가 몽골말 하면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엔 ‘둘이 무슨 말 했어?’ 하고 물어보는 게 신기해요. ‘아! 관심이 생겼네.’ 하고 느껴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쉬웠구나! (수호가 몽골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구나!) 내가 참,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전

에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하고 바보처럼 살았어요.

(2014. 2. 28. 어머니 면담)

수호를 낳고 기르면서 어머니는 수호를 위해 했던 행동들에 대해 하나씩 반성이 된다고 하였다.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며 연구자와 수업이나, 면담을 마치고 수호에게 실천해 보며 어머니 스스로도 느껴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몽골에 대해 수호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도 함께 자신이 몽골인임에 대해 전 보다는 당당한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3) 자녀의 발달과정 이해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머니는 수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매우 높았으나 유아기 발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양육지원 과정을 통해 어머니는 영유아기의 발달에 대한 적합한 지식을 전달 받으면서 자녀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자녀발달에 대한 이해는 어머니 자신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되는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이로 인해 자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공부하니까 재미있어요. 수호 애기일 때 내가 잘 몰라가지구 미안해요. 수호가 아침에 유치원 갈 때 늦게 준비하고 밥 잘 안 먹구 그러는데, 화 내지 않고 ‘해주겠니?’ 하고 말해주는 거 배워서 해주니까 수호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침에 화 안내니까 내 마음도 기뻐요.

(2014. 1. 3 어머니 면담)

또한 수호의 어머니는 보통의 어머니가 가정에서 동화책을 자녀에게 읽어 주며 정서적 안정감과 언어적 자극을 해야 할 영·유아기에 자신의 부족한 한글 발음을 수호가 닳게 되는 것을 걱정하여 제대로 읽어준 책이 전무하다고 하였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과 같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문자에 대한 친근감을 제공하고 책읽기에 대한 습관이 형성될 수 있고, 동화구연을 통하여 대화체 속에서 나오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며 어휘력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게 된다. 또한 감성, 인지, 사회, 정서면에서 풍부해지며 문제해결 능력도 길러지게 된다. 구연으로 이야기 해주는 방법은 어린이의 언어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듣기를 배우게 되고 이야기의 줄거리를 순서대로 기억하고 어휘도 증가시키게 된다. 언어는 분리된 기능으로 가르쳐지기 보다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상호 연관된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 가르쳐야 한다. S구 드림스타트 교육지원 사업으로 수호에게 동화수업을 진행했을 때 수호가 만5세 유아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래동화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음을 참고하여 결혼이주여성인 수호 어머니가 자녀에게 전래 동화를 구연해 주며 수호와 유연하게 상호작용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는 수호 어머니에게 구연동화의 방법을 수호와 수업 전에 미리 지도하였다.

처음에 수호 어머니는 전래동화를 한국어로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매우 쑥스러워하며 책을 천천히 읽어다가 중간 중간 이해하기 힘든 한국어 표현 때문에 머뭇거리기 있어 더듬더듬 읽는 것처럼 느껴져 수호에게 동화의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수호 어머니가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모르는 표현으로 어려움을 느꼈다. 그 후 수호와 어머니의 수업 전

에 연구자가 동화의 내용을 들려주고 어머니가 모르는 어휘에 대해 설명한 후 어머니와 동화 구연을 연습하는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2014 .1. 3. 연구자 저널)

몽골에도 ‘은혜 값은 까치’ 이야기 있어요. 이 동화 읽으면서 몽골이야기랑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수호가 이 이야기 좋아해요. ‘엄마 뱀 나쁘지? 내가 혼내줄 거야. 하면 내가 몽골어로 뱀은 모론(могрой)이야 하고 말하기도 하고 수호가 자꾸 읽어달라고 하고 잘 때도 얘기 해주면 좋아해요.

(2013 .12. 20. 어머니 면담)

어머니: 흥부와 부인은 커다란 박을 톱으로 슬근슬근 톱질해서 잘랐어요.

수호: (동화를 듣다가) ‘슬근슬근’ 이 뭐야?

어머니: 선생님이 그러는데 박을 자를 때 톱 잡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라

수호: 몽골에서도 ‘슬근슬근’ 톱질해?

어머니:(얼굴이 미소를 지으며) ‘호르호르’해 몽골에서는 ‘슬근슬근’하는 말이 ‘호르호르’라고 해.

(2013 .12. 27. 어머니 구연동화 시연 참여관찰)

수호는 내가 몽골말 할 때 못들은 척 해요. 한번도 몽골말 물어본 적 없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동화 읽어 주니까 재미있는 말을 수호가 물어봐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수호가 ‘호르호르’하고 몽골말 하니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013 .12. 27. 어머니 구연동화 시연 참여관찰 후 면담)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인 수호의 어머니는 수호가 만5세가 될 때까지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 내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보통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살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의사소통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생기는데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특히, 전래 동화를 활용할 경우 비슷한 이야기가 서로의 모국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한 동질감과 비교학습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몽골어 지원이 가능한 다문화 생활 안내 사이트와 수호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소개하여 함께 둘러보는 가운데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되어 자녀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2) 유아의 변화

(1) 정체성 갖기

결혼이주 여성인 어머니로부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는 수호의 정체성은 한국 사회에 '속해 있음'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어머니가 다른 나라로부터의 '이주'로 인해 또래 친구들 가족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수호가 한국인으로 느끼는 정체성과 외국인 어머니로부터 정체성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자아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아직 유아기인 수호는 비교적 단순한 자아를 지니고 있어, 또래가 모두 한국 사람인 집단에 소속감을 갖고 싶은 이유로 자신도 한국인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고 소개되어 생활하는 유치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정에서 엄마로부터 언어적인 이해나 설명 없이 수호가 혼자 짐작하여 자신의 가정 상황이 또래와

다름을 인지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수호에게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와, 어머니나라의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유아의 호기심과 정서에 맞는 몽골동화와,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교육지원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호는 어머니나라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 수호는 엄마가 몽골사람이여서 좋겠다. 나중에 몽골에 비행기 타고 가면 엄마가 길도 다 가르쳐주고, 맛있는 거도 금방 찾아서 소개해 주고, 몽골에서 제일 재미있는 곳에도 데려가 주실 수 있잖아.

수호: 몽골에도 놀이동산 있대요.

교사: 우~와! 그렇구나. 몽골 놀이동산은 얼마나 재미있을까? 선생님은 몽골 엄마가 없어서 그곳을 찾아 가려면 힘든데 수호는 좋겠구나.

교사: 수호는 가족 중에 누구를 닮았어요?

수호: (놀이동산 이야기로 표정이 밝아져서) 나는 엄마 닮았어요.

교사: 그렇구나. 선생님도 한 눈에 수호가 엄마랑 똑 닮았다고 생각 했지.

수호는 엄마의 어느 부분을 닮은 것 같아?

수호: (얼굴과 눈, 코를 가리키며) 여기, 여기, 엄마 닮아서 나는 키도 커요.

교사: 오! 그렇구나, 혹시 좋아하는 음식도 엄마랑 같아요?

수호: 음, (잠시 생각해 보더니) 엄마가 만두 만들어 주면 내가 좋아해요.

(2014. 1. 25. 수호 참여관찰)

‘자아정체감 탐색’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외모,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활동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타인과 서로의 일과 관심사에 대해서 공유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였다.

내가 설날에 몽골 음식 ‘보쯔’ (수호가 만두라고 표현한) 만들어 주면 잘

먹어요. 그런데 몽골 음식이라고 말 안 해 줬어요. 수호가 몽골애기 하면 싫어할까봐 안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랑 몽골애기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나도 몽골 애기 많이 못해줘서 내가 미워요.

(2014. 1. 25. 어머니 면담)

‘문화 정체성 탐색’을 위해 유아에게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이를 위해 우리 가족의 특징과 나의 뿌리를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하고 우리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가족을 통해 형성된 문화적 배경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좋은 점을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업을 위해 노트북을 이용하여 다음 세대 재단에서 운영 중인 올리볼리(www.ollybolly.org) 사이트에서 몽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과 몽골의 동화를 함께 보았다.

(몽골 동화도 재미있었어요. ‘엄마, 여기 우리 컴퓨터에서도 나온대. 또 볼래.’ 하면서 연구자가 어머니와 면담의 시간을 갖는 동안 수호는 컴퓨터로 몽골 동화를 다시보기 하였다.)

어머니: 컴퓨터에 아이들 보라고 이렇게 몽골 동화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그 동화 알아요. (울먹이시며) 몽골 그림 보니까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서, 수호 아기일 때 몽골 이야기 안 해 주고 책도 안 읽어주었는데, 수호가 몽골 동화 좋아하는 거 같아서 너무 기뻐요.

(2014. 1. 25. 참여관찰 및 면담)

이중 문화를 지닌 수호의 경우 가정 내에서의 형성된 정체성은 유치원이나 가정 밖의 외부적 공간에서 작은 마찰을 겪을 수 있게 된다. 수호에게 습득된 어머니의 문화가 가정 밖의 사회적 공간에서 수용되지 않거나 거부

의 경험을 가지게 될 때 자신의 정체성을 들어내지 않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 내에서 조차 어머니 나라의 문화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호는 더욱 더 자신의 모습을 들어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사회 안에서 어머니의 문화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거나 교류되지 않을 때, 수호와 같은 다문화가정 자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수호 가족의 경우는 수호가 엄마 나라의 문화와 엄마로부터 전달받은 몽골의 문화에 대한 존중감이 부족함으로 인해 엄마나라에 대한 동일시 없이 자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강하게 이야기 했던 부분이 교육 지원을 통해 어머니의 문화를 수용하고 혼란했던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났다.

(2) 남자 아이는 자라서 어른 남자가 되요

수호는 만 3세에 엄마의 이혼으로 졸곧 엄마와 17세인 몽골인 누나, 최근에 한국에 오게 되어 같이 살고 있는 몽골인 24세 사촌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수호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원장 선생님과 담임선생님, 한글 수업을 위해 방문하시는 학습지 선생님과 S구 드림스타트 담당 직원도 모두 여자였다. 아버지를 통해 이성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로 인하여 수호는 대인관계에서 혼란을 느꼈으며 이는 남자 어른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혼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를 살펴보며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부모가정 출신 위인의 업적을 소개하여 수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둔 교육이 진행되었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의 개선 방법을 모색 한 결과 이전 보다는 조금 변화된 수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호와 소그룹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야기나누

기를 하였다. 그룹 안에는 모-자 가정인 만5세 또래 친구 준서도 있었다. 준서는 밝고 쾌활하며 자신은 ‘엄마랑 형이랑 살고 있으며 아빠는 삼척에 살고 우리랑 이혼 했거든’ 이라며 자신을 소개하자 현우는 ‘나도 아빠 없어. 하며 나는 몽골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돼’ 하고 소개하는 사이 아직 만5세인 그룹 친구들은 첫 만남이 낯설기도 하고 50분씩 두 타임으로 교재가 있는 초등 준비 수업으로 진행 되어서인지 수호의 소개에 덩덤히 반응하였다. 연구자는 이렇게라도 교육지원을 통해 수호와 어머니에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감사하고 보람됨을 느꼈다. 앞으로 더 체계화된 분석과 교육적 지원으로 수호 모-자가 함께 소통함이 가능해 지고 경험하는 어려움이 해결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는 날이었다.

(2014. 1. 11. 연구자 저널)

수호에게 어머니의 이혼이나, 다양한 가족의 모습 등을 교사가 준비한 그림 자료나 수업으로만 이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지인이나 친척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수호가 다른 가정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였으며 그 결과, 수호 어머니님이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으며 사촌 누나의 남자친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수호의 어머니는 몽골에서 관광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손님이 오면 안내 및 통역을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 수호가 수영장에 남자 선생님을 무서워했던 경험이 있기에 수호에게 일상에서의 남자 어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계획하고 수호어머니의 주변에 남자의 역할을 잘 보여 줄 지인이 있어 수호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묻고 상황이 맞으면 시도해 보겠다는 의논을 한 후, 수호 어머니는 주변의 지인이 없기에 관광 손님 중에 조금 익숙하게 된 아기가 있는 가족 세 명

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다과를 먹을 기회를 마련하였다. 수호의 집에 손님이 온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고, 한 살 된 아기를 아빠가 돌봐주시며, 모두 몽골어로 이야기하며 차를 마시고 있는데 수호가 아기 옆에 서더니 아기의 가족에게 한국말로 ‘난 몽골 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되요’ 하며 수줍게 소개하고 손님이 계셨던 한 시간 남짓 동안 손님 가족에게 다가가거나 몽골말 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아기를 어르는 등 기분이 좋아 있었다고 한다.

(2014. 1. 19. 어머니 면담)

내 조카(현재 함께 살고 있음)하고 조카의 남자친구가 수호를 데리고 명동에 갔는데 그 형아가 수호를 목에 업어주고(무등) 아이스크림도 사주니까 수호가 집에 와서 ‘그 형아 멋있어. 우리 아빠도 나 안아주고 목에 업어주면 좋겠는데, 그 형아 언제와? 하고 조카한테 물어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는 여자밖에 없으니까 수호가 남자 큰 형아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어요.

(2014. 1. 19. 어머니 면담)

몽골인 어머니를 둔 수호는 이혼으로 인한 모-자 가정이다. 학교생활이나 수호의 사회적 관계가 늘어 갈수록 한부모 가정이라는 편견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한부모와 산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변의 인식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을 다양한 가족구성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혼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혼이 부모들의 문제이며 수호가 느끼는 정서적 불안, 갈등 상황을 인정하고 그러한 느낌에서 벗어나도록 어머니가 도와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남편이 미웠어요. 수호가 남편의 나쁜 모습을 얘기 때 보고 아빠를 기억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 이혼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수호가 배워서 아빠를 싫어하고 남자 어른을 무서워하거나 영향 있다고 생각 못했어요. 수업하면서 엄마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수호도 나중에 크면 어른도 되고 아빠도 되면 좋은 남자 되고 싶어요.

(2014. 2. 6. 어머니 면담)

이혼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수호가 아직 어리고 사회적 정서나 학교생활에서 수호가 경험하게 될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이기에 이번의 교육적 지원으로 단시간에 변화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교육지원을 통해 수호의 어머니도 자신의 이혼에 대해, 수호 아버지를 수호에게 인식시키는데 어머니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수호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식하고 수호가 남자 어른을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 아닌 자신도 자라서 남자 어른의 모습이 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의 변화는 볼 수 있었다.

(3) 난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발달 주기에 있어서 유아기는 결정적 시기로 유아는 가정과 사회 구조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호는 문화가 다른 이주여성 어머니로부터 양육되었고 이는 일반가정의 또래와 비교하여 제 시기의 발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어머니의 부족한 한국어 양육과 이혼으로 아버지가 부재한 환경은, 유아의 언어지체와 인지부족을 초래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호는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하였고 어머니와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지

원에 포함된 수, 한글 지도와 교육적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만 5세인 수호의 인지 수준은 뚜렷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호가 자라면서 좀 더 많은 경험이 쌓이고, 한국어의 구사가 자유로워진다면 발달의 가능성은 희망적이기에 연구자는 수호가 학습적인 부분과 또래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주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에 가족과 친구가 없는 수호의 어머니는 연구자에 대한 신뢰기 두텁다는 것이 느껴진다. 외향적이지 못한 성격의 어머니는 자신의 개인적 가족사를 들어내기 꺼려하고 몽골에서 온 다른 이주여성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수호의 교육에 필요한 어머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무지로 수호의 발달 시기를 조금 지연시켰음에 마음아파하고 있었다. 수호의 어머니가 낯선 한국에 와서 한국남자와 결혼·이혼을 겪으며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키워야 할 아이를 생각하며 떠올렸을 많은 걱정들에 대해 생각해 보니, 나의 지원에 모자람이나 오류는 없었는지 반성하게 된다. 수호가 마주한 환경에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환경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다.

(2014. 2. 6. 연구자 저널)

수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위해 S구 드림스타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예비 1학년 준비’ 수업을 계획하여, 주1회 2시간 7회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주제가 있는 글의 빈칸을 완성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는 스피치시간과, 짧은 동화를 들려준 후 내용 인지를 위한 질문에 그림과 단어를 이용한 대답으로 동화의 내용을 파악하는 독해수업, 기본적인 초등 1학년 스토리텔링을 통한 수 학습, 그리고 종이접기와 놀이시간 등 기초학습을 보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S구 드림스타트 내 대상 희망자에게 공고하고 모집된 만 5세 8명과 소그룹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저소

득,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드림스타트의 사업 목적상 구성된 소그룹에는 수호 외에 한부모가정 유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다문화 가정은 수호만 대상으로 하였다. 짧은 시간에 눈에 띄는 학습의 향상을 기대하기보다 소그룹 활동 안에서 수호가 보이는 사회성과 학습의 상황에서 호기심과 의지가 어떠한지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였다.

수호의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수호가 원하면 자신의 교재를 보게 해 주고 따라 쓰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겠는지를 물어 보고 동의를 얻었다. 2쪽을 펴세요. 라는 교사의 지시에 ‘난 글씨 몰라요’ 하며 수호는 교재를 펴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 말하였다. ‘몇 쪽 펴세요’ 에 대한 경험이 없음에서 오는 수호의 행동임을 알게 된 것은 스피치, 수, 동화 색종이 수업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몇 쪽 펴세요’ 라는 상황이 되자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정확한 교재의 쪽 수를 찾아서 펴고 있는 수호의 행동으로 짐작되었다. 수호는 미묘한 일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함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로 인한 수호의 행동들이 수호를 친구들보다 산만하고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다. 수호의 어머니가 자신의 부족한 발음을 배우게 될까 우려하여 동화책을 읽어주기나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행동들을 미루고 함께 나누지 못함의 결과로 추정되며 이는 수호의 초등학교 생활에 부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걱정이 되었다.

(2014. 1. 10. 연구자 저널)

7회 차로 진행된 수업에서 수호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으며 특히, 종이접기에 관심이 있고 순서에 맞게 접기를 매우 잘하는 편이었다. 색종이를 접은 선이 깔끔하고 정확했으며, 완성된 후 작품의 균형감이 좋았다.

수호는 종이 접기 선생님이구나! 수호가 만든 배는 정말 멋지다. 색종이

를 뒤집기 할 때 어려웠을 텐데, 선생님 보다 수호가 더 잘하는구나!. 수호는 교사의 칭찬을 받고 표정이 밝아졌다. 곧 한두 명의 친구들이 수호 옆으로 다가와 자신이 접고 있는 색종이를 수호에게 건네며 뒤집기를 도와달라고 했다. 수호는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하더니 한명 한명의 색종이를 배로 만들어 주었다.

(2014. 2. 14. 수업 관찰)

소그룹 수업에서 강사는 매일 출석이나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하루에 10개 정도의 스티커를 주고 30개, 50개, 70개가 모이면 작은 선물을 주었다. 50개를 모으고 선물을 받는 날 수호의 옆 친구 아람이가 지난 시간 결석으로 인해 스티커의 개수가 50개가 못되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선물을 받고 5개의 스티커가 남은 수호가 자신의 스티커 판에서 스티커를 떼어낸 후 ‘친구야 이거 가져.’ 하며 아람이의 스티커 판에 붙여주었다. 수호의 행동을 본 후 다른 친구들도 2~3개씩 스티커를 떼어와 아람이에게 붙여주었다. 친구들 앞에서 수호가 아람이에게 한 행동에 대해 칭찬하고 다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랬다. 수호는 옆 친구를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수호와 친구들은 4회기가 지난 수업 동안 많이 친해져 있었다.

(2014. 2. 7. 연구자 저널)

수호가 선생님 수업을 너무 재미있다고 하고 언제 또 가냐고 기다리고 했어요. 집에 와서도 엄마 나 글자 공부 할 거라면서 책 가지고 오고, 전에는 내가 먼저 한글공부 해야지 하면 아니라고 나중에 나중에 했는데 이 수업 맨날 맨날 하고 싶다고 해요. 글자도 많이 알게 돼서 선생님 감사해요.

(2014. 2. 28. 어머니 면담)

수호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수호가 조금씩 발표하기에 참여하고, 빈 칸

을 채우는 동화 활동지에 옆 친구의 교재를 보면서 천천히 글자를 채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매주 반복되는 문장읽기는 수호도 자신 있게 친구들과 속도를 맞추어 읽게 되었지만, 물건을 세는 단위와, 일, 한 개, 첫째, 하나 등의 다양한 수읽기 활동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기에 7회기 수업이 부족하였다. 교사는 소그룹 수업을 통해 수호가 참여하고 마무리한 활동을 칭찬하고, 수호가 작업 시간은 다소 소요되었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수호의 활동들을 친구들에게 소개하였다. 수업의 초기에는 수호가 주로 다른 친구의 교재나 작업을 보고 따라하는 횡수가 많았으나, 수업의 패턴에 반복이 있고 익숙해지자 수호는 옆 친구에게 자신의 교재를 보여주며 ‘내 거 보고 해도 돼’, 한다거나 종이접기를 먼저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찾아가 종이접기를 도와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수호가 학습과 친구 관계에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호의 이런 변화를 어머니도 기쁘게 받아들이시며, 수호에게 책도 읽어주고 동화도 많이 들려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와 유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양육지원을 계획하고 실시하면서 어머니와 자녀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 어머니의 어려움은 크게 남편의 부재로 인한 한국사회의 이해 부족, 모국어 사용의 배제로 인해 자녀와 소통의 문제, 가족해체로 인한 한국사회와의 단절로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기 자녀의 어려움은 아버지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감, 기초학습 능력이 또래보다 부족함에서 기인한 자신감 저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른 문화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성 간의 충분한 교제시간이 없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가족의 해체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국 국적은 취득했지만 한국인이 아닌 채로 한국인으로 키워야 할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하기에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된다. 더구나,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꾸려가느라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의 이해나 적응을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시간도 없었고 한국의 일반인들과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함께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부재하고 어머니 스스로 모국어 사용을 배제하며 서투른 한국어로 자녀를 양육해 온 어머니는 자녀와 정서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호네 가족은 한국인 아버지의 도움 없이 가족원들 간에 언어 소통이 전적으로 한국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어머니 자신의 모국어를 아이가 배울 것을 우려해 스스로 모국어 사용을 배제하고 금지하였다. 이처럼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임에도 자유로운 언어 소통을 침해할 정도의 부자연스러운 모국어 회피 현상이 발견되었다. 더욱이 한국인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수호네 가족은 올바른 한국어 사용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머니는 남편의 부재로 인해 한국 사회와 단절이 되었으며, 이는 다시 자녀교육의 어려움으로 가중되어졌다. 김도희(2008)와 노미향(2009)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들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양육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에 제한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익균, (2003)은 여성 한부모가족은 부의 상실이라는 충격으로 인하여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감소 및 사회활동의 위축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계중심의 사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모자가족의 대인관계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정보의 제한은 자녀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에도 한계를 갖게 하여 결국 자녀의 교육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특히,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기에

주변의 도움 없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한글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부족과 기타 자녀교육에 관한 지식의 부족은 어머니가 자녀의 학습준비를 돕는데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에 어머니 스스로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유아가 겪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유아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유아는 다른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한국태생으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정에서 유아 자신을 한국인으로 지지해줄 아버지가 부재하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아는 또래 친구들의 가정 상황과 다름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유아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어머니와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또래와의 관계 속에 한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인식과 상대적 서열 개념이 생기면서 아동들은 그들의 ‘차이’를 편향된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따돌림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다(전은희, 2012).

또한, 유아는 아버지의 부재로 심리적 불안감이 표출하는데(서영숙, 황은숙, 2004), 이에 관하여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김익균(2003)은 자녀들이 동일시할 대상의 상실로 인해 자녀의 건전한 양육에 지장이 오고 남아의 경우 동성의 동일화 대상의 상실로 남성의 역할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 유아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만 5세 수호는 기초학습 능력이 또래보다 부족하여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언어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회성발달 및 학업습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김갑성(200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국인 어머니를 둔 자녀는 매우 어린 시기부터 어머니와의 풍부한 구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자언어를 학습하기 이전에 이미 구어적 개념과 사물에 대한 개념들이 확립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말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아 학습 부진을 경험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조영달,2006; 오성배, 2005). 이러한 학습부진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수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 되거나 혹은 과잉행동과 같은 정서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다(왕한석, 한건수, 양명희,2006). 또한 어머니의 가치관은,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가 혼재된 상태에서 자녀교육이 이루어지기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정서적 불안정이나 문화적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오성배,2007). 이처럼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은 어머니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양육지원을 통해 나타난 어머니의 변화는 남편의 부재로 단절되었던 한국문화를 안내받고, 다문화 공존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과, 모국문화를 수용하고, 자녀와 정서적 소통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며, 자녀교육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어머니 역할을 재인식하게 되는 변화로 나타났고, 유아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은 아버지가 부재하지만 유아자신은 한국인이라는 지지로 유아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고, 거부하였던 어머니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어머니와 관계의 회복으로 정서적 불안감이 줄어들고 있으며, 또래와의 관계, 인지적 자신감에 향상을 보이는 변화가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관습은 단시간 내에 쉽게 동화되거나 흡수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문화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혼으로 단절되어 수호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한국문화에 대한 습득이 불가능하기에 연구자는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수호의 어머니가 겪었던 문화적 갈등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나누었다. 결혼이주여성인 수호 어머니는 한국에서 문화적 권리를 인정받았거나,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여유 없이 스스로를 감추고 내세우지 않으며 사는 것이 차별을 덜 받는 다고 생각하며 한국사회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스스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경험한 수호 어머니에게 연구자는 같은 한국 안에도 지방색이 있어서 지역마다, 사람마다, 가족마다 각각 풍습이 있기에, 같은 한국인이 결혼을 하여도 한동안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음을 이야기 해 주었다. 또한 한국 내에서 다문화 관련 커뮤니티에 소속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한 어머니에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는 문화적 갈등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인지하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는 자녀와 정서적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모국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상호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이주자의 정체성과 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응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정진경, 2004)는 연구결과와 같이 어머니의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수용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Berry는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본 국의 고유한 문화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이주자 개인의 입장에서 모국 문화와 주류 문화 쌍방향으로 유능하게 행동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는(Berry, 1997. 정진경, 2004 재인용)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양육지원을 통해 어머니는 자녀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자녀교육에 관한 교육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어머니역할에 자신감을 갖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머니가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유아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변화로 나타났다. 어머니 역할에 자신감이 부족했던 이주여성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자녀발달과 성장에도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동화구연과 같은 부분은 직접 연습하고 시연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유아에게 나타난 변화는 태어나서 자란 한국에서 ‘한국사람’이라는 인식과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였지만 이는 가정에서 엄마로부터 언어적인 이해나 설명이 없었기에, 수호에게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와, 엄마나라의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유아의 호기심과 정서에 맞는 몽골동화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교육지원으로 수호가 엄마나라를 긍정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를 통해 동성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유아는 대인관계에 혼란을 일으켜 남자 어른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유아를 위해 이혼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를 살펴보며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부모가정 출신 위인의 업적을 소개하여 수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둔 교육이 진행되었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의 개선 방법을 모색 한 결과 이전 보다는 조금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간의 발달 주기에서 결정적 시기에 있는 유아는 가정과 사회구조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이 이루어져야하지만,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

정이라는 특수성으로 또래와 비교하여 제 시기의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어머니의 부족한 한국어와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아는 언어지체를 겪게 되었고 이는 인지부족으로 이어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감과 의욕 상실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지원에 포함될 수, 한글 지도와 교육적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만 5세인 현재 인지발달 수준에 관해 뚜렷한 향상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지 않은 만 5세의 유아는 자라면서 인지구조가 넓혀지고, 경험이 쌓이고, 한국어의 구사가 자유로워진다면 발달의 가능성은 희망적이기에 연구자는 유아가 학습과 또래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주고자 노력하였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 어머니의 어려움은 크게 남편의 부재로 인한 한국사회의 이해 부족, 모국어 사용의 배제로 인해 자녀와의 언어적, 정서적 소통의 어려움과 가족 해체로 인한 한국사회와의 단절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 결혼이주 여성 가정 유아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 부재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불안감, 또래보다 부족한 기초 학습으로 인한 자신감 저하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른 문화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성 간의 충분한 교제시간이 없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한국

어 구사능력이 낮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이혼으로 가족이 해체됨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국 국적은 취득했지만 한국인이 아닌 채로 한국인으로 키워야 할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하기에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된다. 더구나,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꾸려가느라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의 이해나 적응을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시간도 없고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도움이 없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양육지원 초기에 남편의 부재로 단절되어 한국문화 습득이 어려워지고 문화적 갈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던 어머니는 양육지원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자존감을 회복하여 스스로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 자신의 모국문화 배제로 인해 자녀와 언어적, 정서적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육지원을 통해 정서적 위안과 심리적 안정을 받은 어머니는 모국문화를 수용하게 되고 자녀와 정서적 소통을 위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이혼은 배우자를 비롯한 한국사회와의 단절을 가져와 교육정보 등이 취약하여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양육지원을 통해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였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녀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아는 한국인인 아버지는 부재하지만 어머니로부터 한국인임을 인정받고,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 갔으며 어머니의 적극적인 자녀교육 참여로 유아는 인지적인 부분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참고하여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버

지의 부재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며 일반 다문화가정의 지원과는 차별화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므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참여관찰이 수반되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과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각 사례마다 표출되는 어려움과 경험은 개인적이며 그에 적합한 양육지원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유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례 연구로서 S구 드림스타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려움과 양육지원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 보았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이 연구를 전체 모집단이 되는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경우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결혼이주여성 모자 가족의 경우라 하더라도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후, 나타나는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사례와 경험에 있어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파악한다면 사례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 이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은의 출신국은 몽골이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들이 지니고 있는 각기 다른 민족, 문화 배경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양육지원 후 나타나는 변화를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고 기술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 양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여 프로그램 실시 후 나타나는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어려움에 관하여 자녀 양육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전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논의 또한 요구된다. 향후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도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 (2009). 다문화 가정 모의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코칭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3), 111-125.
- 고은미 (2009). 학교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 독해자료 구성 방안 연구. *국어문학*, 46, 5-32.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 권영미 (2000).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형례 (2010). 다문화가정 유아교육에 대한 실태 분석: 대전시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성 (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와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희 (2008). 결혼이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영향 연구: 문화적응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두섭, 이명진 (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 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33-56.
- 김미숙 (2009).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아, 신혜은 (2008). 다문화가정 취학전 유아 한국어 교육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아동학회지*, 29(2), 155-179.
- 김민정 (2008).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 여러종류의 한국인이 가족으

- 로 살아가기. 한국문화인류학. 41(1), 51-89.
- 김선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 김우경, 조애저, 김혜련, 이혜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09).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수 (2008).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탄력적 부모 되기 프로그램 적용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4, 189-222.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2010).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서울특별시 연구정보원.
- 김은하 (2008). 이혼한 여성의 어머니 경험. 질적연구, 9(1), 57-70.
- 김이선 (2007). 한국사회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소통 현실과 전망: 미래사회의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센터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185-197.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서울 : 한국 여성 개발원.
- 김이선, 마경희, 선보영, 최호림, 이소영(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 김익균 (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 노미향 (2009).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1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문경연 (2010).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 결혼이주여성들의 이

- 혼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현숙, 김득성. (2000).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99-120.
- 민성혜, 김경은, 김리진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아동학회지, 32(1), 31-48.
- 박계란, 이지민 (2010).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9(6), 981-991.
- 박미정 (2011).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미정, 엄명용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6.
- 박민서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 17(2), 75-105.
- _____ (2011).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해체 원인 및 특성 분석: 경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104-139.
- 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균 (2012). 다문화가정의 이중 언어, 이중문화적 양육환경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양육참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65-388.
- 박효섭 (2006).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본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가능성-아시아

- 아 공동체 학교를 중심으로. 제 7차 국제이해 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60-75
- 방신영 (2006).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와 지원방안.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
- 보건복지부 (2005). 또래 집단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에 대한 연구.
- 봉진영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교사의 교육경험에 대한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영숙, 황은숙 (2004).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8(1).
- 서정혜 (2009).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설동훈 (2010). 다문화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138, 13-17.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윤홍식 (2008). 여성결혼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손은록 (2005).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 원인과 갈등 대체 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진분 (2008).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경, 이은경, 신호정 (2008).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 신경희 (2005).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정 (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 (2006). 한국남성과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재찬 (2006). 동남아 혼혈 더는 외면하면 안된다: 코시안. 월간중앙, 32(5), 262-271.
- 양정화 (2005).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2003). 외국인 부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6), 127-149.
- 여성가족부 (2011).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_____ (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12, 33-56.
- 오정선 (2011).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과 양육태도,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한석, 한건수, 양명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 실태 연구: 전라북도 임실군 일원 사례 보고서. 국립국어원.
- 유은광, 김혜진, 김명희 (2012).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2(2), 171-180.
- 이경아, 김민호, 오성배, 윤창국, 임명희, 김세화 (2012). 다문화가정 학부모

-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규삼 (2000).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승 (2010). 여성 결혼 이민자 부부의 결혼만족과 이혼 의향 결정 요인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신 (2006). 여성의 잠재적 이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황과 복지, 22, 207-266.
- 이소희 외 공저 (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양지사.
- 이재분 (2008). 국제결혼자녀의 교육실태. 원희목(한나라당)의원실 토론회 발제문.
- 이주여성인권센터 (2008). 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적응과 폭력사이에서.
- 이진숙 (2007).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및 활용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옥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송 (2008). 이혼의 경제적 충격의 추정, 가족과 문화. 20(1), 161-185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가정의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정계숙 (2007). 부모교육. 서울:창지사.
- 정순연 (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 언어 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명림, 이윤진, 이정림, 민현숙, 이세원, 소수정, 송윤정(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장영희, 김희진, 엄정애, 권정윤 (2007). 생애초기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발달지원프로그램 개발방향. 교육인적지원부.

- 정예리 (2011). 해체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삶-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한국언어치료학회, 13(3), 33-52.
- 조미영 (2011).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멘토링 과정 탐색.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혜영, 양계민, 김승경, 김재우, 조아라 (2011). 다문화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 매뉴얼. 여성가족부.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주미연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의사 결정요인 분석.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추현화 (2007). 국제결혼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숙 (2008). 단일주제 사용 언어교수법의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다각적 분석: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명 (2007). 국제결혼 부부(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의 의사소통방식, 정서적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재은 (2005). 미국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체제 분석과 시사점.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11(2), 1-22.
- 통계청 (2014). 혼인·이혼 통계.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 (201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주여성과 관련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보고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염 (2005).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 _____ (2008). 이주여성 실태와 인권문제 해결방안. 이주여성 인권문제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 행안부 (201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자치 행정과.
- 홍성효, 하헌주, 김종수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이혼결정요인, *한국인구학*, 35(3), 169-189.
- 홍정미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은숙 (2002). 한부모가정에 대한 반편견 유아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애, 나종혜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적응 프로그램 요구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75-687.
- KBS2 특별기획. 다문화시대 보도자료 (2007. 07. 02)
- 올리볼리. <http://www.ollybolly.org>
-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http://www.hanbumo.org>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http://www.seoulhanbumo.org/business>
- Bennett, C. I. (2001). Genres of research in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1(2), 171-217.
- Bennett, C. I.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6th). Boston: Pearson.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ery Park, CA: Sage.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y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Winston.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Lee,1989)(tran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Spradley, J. P. (2006). 참여관찰법. (신재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은 1980에 출판)

ABSTRACT

A Case Study about Single-parent family migrant woman's difficulty and the child rearing support

Park, Young-shin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bout the difficulty of single-parent migrant women and child. After support for the child rearing program for the mother and her child, the chang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is purpose of study,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difficulty of the single-parent family migrant women and children?

Second, what is the change in single-parent family migrant women and children through related the support for the child-rearing program.

The period of the first research was from April 5, 2013 to May 31, 2013. It was the program of S-Gu Dream Start in for the single-parent family migrant women and children. During this period, The researcher

observed the situation about the difficulty of single-parent family migrant women and children. The child-rearing program was supported 24 times from October 25, 2013 until February 28, 2014. Research results were organized and categorized during the research period. This is based on the data as manuscript of interview, journal of participating observation and related docu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ingle-parent family of migrant women have difficulty in lack of understanding Korea culture, due to mother's native language it makes them communication problems due to her child, education. The child experience of difficulties is identity confusion, psychological anxiety, decreased self-confidence because of different cultural communication problems, lack of understanding with basic academic skills because of his paternal absence.

Second, at the beginning of the support, the mother has lack of understanding identity and cultural conflict was confused but gradually understand and sympathetic. The single-parent family of migrant women wanted to find self-esteem and identity recovery. In addition, the child has difficulty with linguistic, emotional communication difficulties due to the exclusion of the mother's native country culture. The mother has been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comfort, through the child-rearing program. The mother tried to change for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her child after that accept her own country's culture. The mother got more difficulty of the child's education because her divorce made her cut off the Korea culture and her husband's help. However, the single-parent family of migrant women became new realized as a mother's role for her child after support for child-rearing program. The mother learned the knowledge and confidence to knowing how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of her child. The mothers' reflections on their experience revealed child rearing opened them up to experiencing unfamiliar Korean cultures and lives, provided opportunity to expand their relationships with various people, and to use, share and incorporate their past homeland experiences within a new context. The child's emotional instability and confidence has been improved gradually.